

#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4. 11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 머 리 말

세계는 저성장, 저금리, 인구고령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경제 금융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훼손된 것도 원인이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여력 부족, 설비투자 부진, 소득 분배구조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 주거비용 상승, 노후대비부담 확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본격적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설비투자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의 수익성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 보험회사는 지금의 경제·금융상황이 경기 순환성 하강국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 체질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2015년 보험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보험산업 규제 개혁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계획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격결정에 대한 보험산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제·제도·감독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와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경영과제 및 감독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하며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동향분석실 연구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 목차

---

요약 / 1

### I. 경제동향과 전망 / 10

1. 세계경제 / 10
2. 국내경제 / 20
3. 국내금융시장 / 37

### II. 국내보험시장 / 43

1. 생명보험 / 43
2. 손해보험 / 56
3. 보험산업 종합 / 68

### III. 보험산업 경영과제 / 71

1.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 74
2.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 77
3.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 81
4. 보험산업 규제변화 효과적 대응 / 82

| 부 록 | / 85

## ■ 표 차례

---

-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1
- 〈표 I-2〉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17
- 〈표 I-3〉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18
- 〈표 I-4〉 전세계 상위 원유 생산 지역(2013년 기준) / 19
- 〈표 I-5〉 국내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 21
- 〈표 I-6〉 고용시장 동향 및 전망 / 30
- 〈표 I-7〉 물가 변동 요인 / 31
- 〈표 I-8〉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32
- 〈표 I-9〉 대외거래 전망 / 34
- 〈표 I-10〉 기준금리 / 37
- 〈표 I-11〉 금리 및 환율 전망 / 41
- 〈표 I-12〉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종합 / 42
- 〈표 II-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 50
-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 54
- 〈표 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8
- 〈표 II-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 60
- 〈표 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3
- 〈표 II-6〉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 65
- 〈표 II-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 68
- 〈표 II-8〉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69
- 〈표 II-9〉 보험침투도 전망 / 69
- 〈표 II-10〉 보험밀도 전망 / 70

## ■ 그림 차례

---

- 〈그림 I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10
- 〈그림 I -2〉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 추세 / 14
- 〈그림 I -3〉 미국, 유로, 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 14
- 〈그림 I -4〉 미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 17
- 〈그림 I -5〉 1~9월 주요국 금리 및 환율 변동폭 / 17
- 〈그림 I -6〉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추이 / 18
- 〈그림 I -7〉 중국의 투자 및 소비 추이 / 18
- 〈그림 I -8〉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 / 19
- 〈그림 I -9〉 GDP 성장 추이 / 20
- 〈그림 I -10〉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 / 22
- 〈그림 I -11〉 소비자심리지수 및 가계대출 증가율 / 22
- 〈그림 I -12〉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소득, 기업소득 증가율 / 23
- 〈그림 I -13〉 가계소득 원천별 기여도 / 23
- 〈그림 I -14〉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 / 24
- 〈그림 I -15〉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 24
- 〈그림 I -16〉 업종별 설비투자 증가율 / 25
- 〈그림 I -17〉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25
- 〈그림 I -18〉 한계기업 현황 / 26
- 〈그림 I -19〉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 기업 재고율 추이 / 26
- 〈그림 I -20〉 매출액영업이익률 장기추세 / 27
- 〈그림 I -21〉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28
- 〈그림 I -22〉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 29
- 〈그림 I -23〉 취업자 증가율 추이 / 29
- 〈그림 I -24〉 근원인플레이션율 / 31
- 〈그림 I -25〉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 31
- 〈그림 I -26〉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 32

## ■ 그림 차례

---

- 〈그림 I -27〉 수출 증가율 추이 / 33
- 〈그림 I -28〉 GDP대비 수출비중 / 34
- 〈그림 I -29〉 교역조건 등락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34
- 〈그림 I -30〉 한국 / 35
- 〈그림 I -31〉 선진국 / 35
- 〈그림 I -32〉 세계 / 36
- 〈그림 I -33〉 미국 / 36
- 〈그림 I -34〉 유럽 / 36
- 〈그림 I -35〉 일본 / 36
- 〈그림 I -36〉 한국 · 미국 국채 수익률 추이 / 38
- 〈그림 I -37〉 국고채 수익률 곡선 추이 / 38
- 〈그림 I -38〉 회사채 순발행 현황 및 우량물 발행비중 / 38
- 〈그림 I -39〉 스프레드 추이 / 38
- 〈그림 I -40〉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 39
- 〈그림 I -41〉 GDP대비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 40
- 〈그림 I -42〉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추이 / 40
- 〈그림 II -1〉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 43
- 〈그림 II -2〉 보장성보험 보험료 성장률 추이 / 44
- 〈그림 II -3〉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 45
- 〈그림 II -4〉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 46
- 〈그림 II -5〉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 47
- 〈그림 II -6〉 기준금리와 정기예금금리 추이 / 48
- 〈그림 II -7〉 가계 잉여 및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가액 / 48
- 〈그림 II -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48
- 〈그림 II -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50
- 〈그림 II -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 51

## ■ 그림 차례

---

- 〈그림 Ⅱ-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52
- 〈그림 Ⅱ-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54
- 〈그림 Ⅱ-13〉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 55
- 〈그림 Ⅱ-14〉 장기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 57
- 〈그림 Ⅱ-15〉 저축성/상해·질병 초회보험료(월별) / 57
- 〈그림 Ⅱ-1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 57
- 〈그림 Ⅱ-17〉 개인연금 월별 보험료 / 59
- 〈그림 Ⅱ-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 59
- 〈그림 Ⅱ-1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60
- 〈그림 Ⅱ-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60
- 〈그림 Ⅱ-21〉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 61
- 〈그림 Ⅱ-22〉 자동차보험 월별 경과손해율 / 61
- 〈그림 Ⅱ-23〉 주요 담보별 원수보험료 추이 / 62
- 〈그림 Ⅱ-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2
- 〈그림 Ⅱ-2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 64
- 〈그림 Ⅱ-2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65
- 〈그림 Ⅱ-2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 67
- 〈그림 Ⅱ-28〉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 70
- 〈그림 Ⅲ-1〉 저성장·저금리의 ‘New Normal’과 환경변화 / 72
- 〈그림 Ⅲ-2〉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산업 환경변화 / 74



##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5**

This report provides growth projections in 2015 for the insurance industry as well as the Korean economy.

In 2015, the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3.7%, increasing by 0.2%p over 2014, due to a slow recovery trend of private consumption. Sinc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improved slightly, consumer prices will rise by 2.0%, increasing by 0.4%p over 2014.

In 2015, interest rate of Korea treasury bonds (3-year) will be maintained around 2.6% due to a decrease in the U.S.'s Treasury bond rate and a lowered Korean base rate. In spite of a continuing current account surplus, the won/dollar exchange rate will record 1,040 won, which is similar to 1,049 won in 2014, due to a rise in the U.S.'s Treasury bond rate, a decrease in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and possibility of emerging economies' currency disturbances.

The global risk factors for the economy are the change of monetary policy in the U.S.,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the expansion of the geopolitical unrest. The domestic risk factors for the economy are increasing household debts, corporate debts, and weakened yen.

In 2015, as the base effect of tax-free benefit is disappeared and the surplus of household funds are saved as pension and insurance, the growth rates of both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will increase over 2014, and premium income will grow to 5.2%, increasing by 1.7%p over 2014.

For life insurance, since premium income of saving type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 and group insurance increased steadily, the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by 5.4%, which is 3.0%p higher than 2014.

For non-life insurance, premium income will increase by 4.8%, which is 0.5%p lower than 2014, due to a low growth of long-term non-life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general non-life insurance premiums, as subscription rate of medical insurance has increased.

This report suggests the management issue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he policy issues for regulators, given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such as the New Normal era, which is characterized by low growth, low interest rate, and population ageing, and the regulatory changes. The presented management and policy tasks are ① searching for business strategies for New Normal era, ② continuously finding new growth engines, ③ efficiently managing cost, ④ responding to regulatory changes in the insurance industry.

First, the report suggests that insurers should establish the business strategies that strengthen their core capabilities and improve their enterprise values to survive in the new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the New Normal era).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is not the recession, but it occurred from structur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ageing, stagnant investment, and deteriorated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Therefore, the business strategy during a low growth period due to structural factors should be different from due to economic recession.

Seco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should be found and customer-oriented business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the sustainable growth in the new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Moreover, insurers need to seriously consider overseas business, the market for the aged, and liability insurance market as new growth engines.

Third, in the new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insurers should sustain their business performances and improve cost efficiency in product development and operation process as well as human resource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in the cost structure and the management of expense ratios will be insurers' crucial business priorities.

Fourth, insurers should systematically react to recent changes in financial regulation such as liberalizing insurance premium rate scheme, improving consumer trust, and strengthening solvency regulation. While regulators should make an effort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where self-regulation principle can work, insurers should make sure that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will not harm consumer rights and sound business conduct.



## 요 약

### I. 경제동향과 전망

#### 1. 세계경제

- IMF는 2014년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2013년과 동일한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sup>1)</sup>
  - 2014년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0.5%p 상승한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로 2013년보다 0.3%p 하락한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5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4년보다 0.5%p 상승한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선진국의 경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나 미국 및 유로지역의 성장세 확대로 2014년보다 0.5%p 높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4년보다 0.6%p 상승한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2015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의 경기 반등에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3년과 동일한 3.8%를 나타낼 전망이다.

---

1)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5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 지역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완화 정책 확대 가능성, 일본 소비세율 2차 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 금리는 각국의 경기 회복세와 통화정책에 따라 상승폭이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 2. 국내경제

-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제한적인 회복과 설비투자 개선, 수출 증가 등으로 2013년 3.0%에 비해 0.5%p 상승한 3.5% 성장할 전망이다.
- 2014년 소비자물가는 지난 2년간의 기저효과와 완만한 생산자물가 회복세로 2013년보다 0.3%p 상승한 1.6% 오를 전망이나 여전히 2%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5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나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대비 0.2%p 상승한 3.7% 성장할 전망이다.
  - 2015년 민간소비는 고용이 개선될 것이나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와 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2.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및 수출 증가세 등으로 5.7%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특별한 물가 상승 요인이 없어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한 2.0%에 그칠 전망이다.
- 2015년 고용상황의 경우 서비스업 취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본격적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 지연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2015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교역량 증가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수입도 증가할 것이나 수출 증가세보다는 수입 증가세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이로 인한 교역량 증가로 2014년 3.4%에서 2015년 0.6%p 늘어난 4.0% 증가할 전망이다.

○ 수입은 민간 소비 부진 지속에도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 등으로 2014년 3.0%에서 2015년 6.0%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는 2014년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3. 국내금융시장

■ 2014년 국고채(3년) 금리는 연간 2.6% 수준으로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국내 기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되었음.

■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2013년(1,095원)보다 절상되어 평균 1,049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경제 회복세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와 신흥국 불안 가능성 등으로 2014년보다 소폭 절상된 1,040원 수준이 전망됨.

## Ⅱ. 국내보험시장

### 1. 생명보험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저성장하고 단체보험은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세제개편 기저 효과가 이어지면서 0.4%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3.8%의 고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단체보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고성장하면서 2014년에 비해 3.0%p 상승한 5.4% 성장이 전망됨.
  - 개인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성장세를 회복하고 보장성보험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4.8%의 성장이 전망됨.
    - －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요 창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도적 혁신 상품 부재와 가입률 확대 등으로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경쟁력 유지와 상대적 세제 혜택 등으로 예년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당분간 계속 보험료 위주의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은 감소할 것이나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하면서 10.8% 성장할 전망이다.

## 2. 손해보험

-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으로 FY2013보다 1.1%p 상승한 5.3%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과 계속보험료의 완만한 증가로 6.1%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효과의 약화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변경으로 초회보험료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2.6%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조정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등으로 4.1% 증가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1%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원수보험료 실적을 뚜렷하게 개선시킬 만한 예상 요인이 많지 않아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에 힘입어 5.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지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어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5.6%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 등으로 3.7% 증가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다른 종목들의 실적 개선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2.8%의 저성장이 전망됨.

###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 (경제·금융·사회환경) 저성장·저금리·인구고령화 등이 특징인 소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순환상 경기하강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현상임.

\* 가계 및 기업의 과도한 부채 수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단기성과 중시로 인한 설비투자 소홀, 재정건전성 악화

- 이제는 저성장·저금리와 인구고령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당연(뉴 노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제도·감독환경) 2014년 7월 금융규제 개혁안이 발표되는 등 요율 선진화, 소비자 신뢰 제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복합점포, 온라인 슈퍼마켓 등 새로운 판매채널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경영환경) 뉴 노멀 시대 진입 및 제도·감독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체계적인 대응과 기존시장에서의 신계약 위주 경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 요율 규제 완화,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경영방식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

## 1.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한 경영전략 모색

- 과거와 같은 기존시장 위주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
  - 기존시장에서 양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 발굴이 필요함.
  - 기존고객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사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상품 및 서비스 개선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더불어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을 병행하여 추진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뉴 노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위기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역량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2.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존 시장의 성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수익원 발굴에 대한 노력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함.
  -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유망 사업도 빠르게 레드오션화됨.
  - 기존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신규사업 실패 부담도 증가됨.
  - 저성장기에는 핵심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며, 핵심역량 유무에 따라 신규 수익원 발굴의 성공여부가 달라질 것임.
- 해외사업, 고령층 대상 시장,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3.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 뉴 노멀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저효율 경영에서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여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유지해야 함.
  - 저성장 장기화는 기존사업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하락시킬 것이며, 경영성과가 하락하면 핵심역량을 키울 재무적 여력이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됨.
  - 장기적 비용구조 개선과 사업비율 관리가 중요한 경영과제가 될 것임.
- 인력은 물론 상품,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보험산업 규제변화에 효과적 대응

- 요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 신뢰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금융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복잡점포, 설계사모집 이력관리 시스템, 단종 보험대리점 등이 가시화될 경우 건전한 영업환경 질서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험률 산출 및 안전할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 보험업계 역시 가격결정능력을 보다 제고해야 함.
- 2018년까지 부채시가평가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완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따라 정책 및 감독당국은 시장 자율 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따른 자율성 강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이러한 자율성 강화가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I. 경제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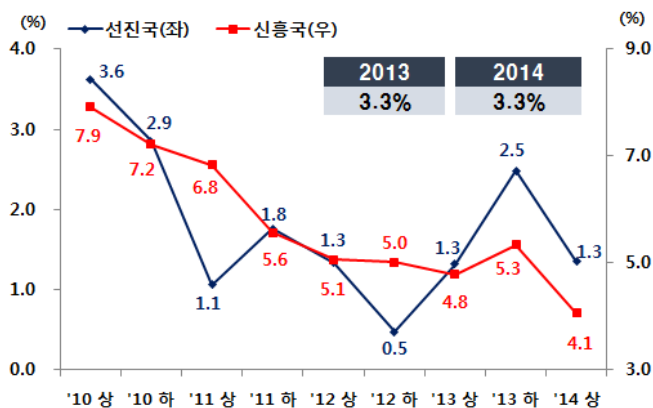
## 1. 세계경제

### 가. 경제성장

■ IMF는 2014년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2013년과 동일한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sup>2)</sup>

○ 선진국은 2013년 하반기보다 2014년 상반기 성장률이 하락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EO(2014, 10).

2)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4년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0.5%p 상승한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sup>3)</sup>
-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초 재고 감소 및 이상 기후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과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유로지역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및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2013년보다 1.2%p 증가한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2013년보다 0.6%p 하락한 0.9% 성장이 예상됨.

〈표 I-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E) | 2015(F) |     |     |
|------|------|------|------|---------|---------|-----|-----|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 세계경제 | 4.1  | 3.4  | 3.3  | 3.3     | 3.8     | -   | -   |
| 선진국  | 1.7  | 1.2  | 1.4  | 1.8     | 2.3     | 2.4 | 2.5 |
| 신흥국  | 6.2  | 5.1  | 4.7  | 4.4     | 5.0     | 5.0 | 5.0 |
| 미국   | 1.6  | 2.3  | 2.2  | 2.2     | 3.1     |     |     |
| 유로   | 1.6  | -0.7 | -0.4 | 0.8     | 1.3     |     |     |
| 일본   | -0.5 | 1.5  | 1.5  | 0.9     | 0.8     |     |     |
| 중국   | 9.3  | 7.7  | 7.7  | 7.4     | 7.1     |     |     |
| 인도   | 6.6  | 4.7  | 5.0  | 5.6     | 6.4     |     |     |
| 브라질  | 2.7  | 1.0  | 2.5  | 0.3     | 1.4     |     |     |
| 세계무역 | 6.7  | 2.9  | 3.0  | 3.8     | 5.0     |     |     |

자료: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3)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 2014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중국,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로 2013년보다 0.3%p 하락한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과잉설비,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2013년 대비 0.3%p 하락한 7.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을 상승, 재정수지 악화, 기업 및 소비자 신뢰 하락 등으로 2013년보다 2.2%p 하락한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인도는 1/4분기까지 저성장을 지속하였지만,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2013년보다 0.6%p 상승한 5.6% 성장할 것으로 보임.
  
- IMF는 2015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완만하게 회복되어 2014년보다 0.5%p 상승한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선진국의 경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한 반면, 미국 및 유로지역의 성장세 확대로 2014년보다 0.5%p 높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sup>4)</sup>
    -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여건 및 가계소득 개선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014년보다 0.9%p 상승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은 저물가 추세 장기화, 지정학적 위험 등의 요인이 회복을 지연시켜 2014년보다 0.5%p 상승한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2차 소비세율 인상<sup>5)</sup> 등의 우려로 2014년보다 0.1%p 낮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인도를 중심으로 2014년보다 0.6%p 상승한 5.0%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4)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5) 2015년 10월부터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전망이다.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부진 가시화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 등의 내수 약화로 2014년보다 0.3%p 낮은 7.1% 성장이 예상됨.
- 반면, 인도 경제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내구재 부문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어 2014년보다 0.8%p 상승한 6.4% 성장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는 투자 및 소비 둔화, 월드컵 개최를 위한 과도한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 부족 등으로 2015년 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나. 소비자물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 IMF는 2014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수요부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13년 3.9%에서 0.1%p 하락한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sup>6)</sup>

- 2014년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등으로 각각 1.3%,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원유가격은 배럴당 평균 102.8달러<sup>7)</sup>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의 경기반등에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3년과 동일한 3.8%를 나타낼 전망이다.<sup>8)</sup>

-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1.8%, 5.6%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2015년 국제유가는 달러화 강세, 비(非)OPEC 국가의 원유공급 증가 등으로 2014년 대비 3.3% 하락한 배럴당 평균 99.4달러로 예상되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은 신흥국의 수요 둔화, 생산 증가에 따른 초과 공급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6) IMF(2014. 10), W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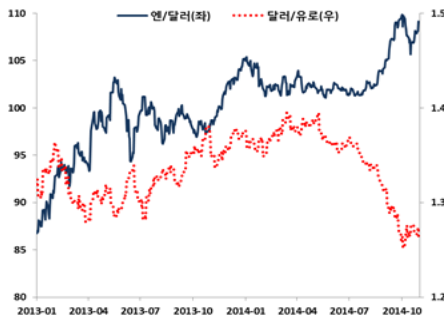
7) IMF(2014. 10), WEO, 두바이·WTI·브렌트 유가 평균 기준.

8) IMF(2014. 10), WEO.

## 다. 세계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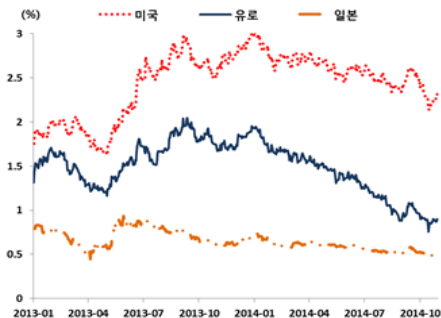
- 2014년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경제보다 상대적 호조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등으로 세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유로화는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 등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임.
  - 미국 출구전략과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함.
-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 변동성은 2013년 확대되었지만 금리 수준은 2014년 들어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 다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상반기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공급 둔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및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I-2〉 달러 대비 유로화와 엔화 추세



자료: Bloomberg.

〈그림 I-3〉 미국, 유로, 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 2015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유로 지역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완화정책 확대 가능성, 일본 소비세율 2차 인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달러화는 유로화,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과는 반대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화 강세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 엔화는 소비세율 추가 인상으로 통화완화 강도가 커질 경우 약세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국 위안화는 경상수지 흑자,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으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물경제 지표 부진, 부동산 급락 등 중국 경제 둔화 우려도 상존하여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 금리는 각국의 경기 회복세와 통화정책에 따라 상승폭이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 과거 미국 국채금리(10년물)가 기준금리보다 먼저 상승한 사례를 고려하면 2015년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요국의 국채금리에도 동반 상승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그러나 유로 지역 및 일본의 국채금리(10년물)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 라. 경기하방 위험

- 2015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경제성장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Box 1〉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참조).
- 2014년 1월부터 진행해 온 양적완화정책을 2014년 10월 종료하였으며, 향후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
  - 유로 지역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확대<sup>9)</sup>와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됨.

9) 유럽중앙은행(ECB)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경우 자산 매입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해소 및 엔저를 통한 기업경기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본원통화를 연간 60~70조 엔 늘리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 중국의 주요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도 위험요인으로 대두됨(〈Box 2〉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참조).
  - 중국은 2015년에도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가운데,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존재함.
    - 과잉투자, 부동산 시장 거품, 그림자금융 부실화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금리 상승기조와 맞물려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도 다른 위험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Box 3〉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 참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 등 지정학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Box 1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 연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0월 양적완화정책 종료를 선언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주택경기 개선 및 민간소비 증가로 2014년 2.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0.9%p 상승한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6.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0.4%p 하락한 5.9%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I-2〉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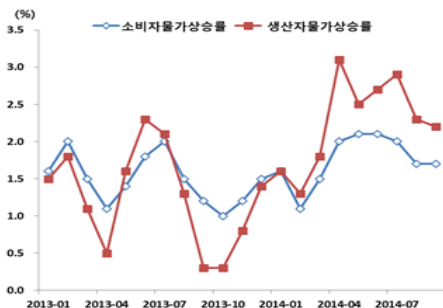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2012 | 2013 | 2014(E) | 2015(F) |
|-----|------|------|---------|---------|
| 성장률 | 2.3  | 2.2  | 2.2     | 3.1     |
| 실업률 | 8.1  | 7.4  | 6.3     | 5.9     |

자료: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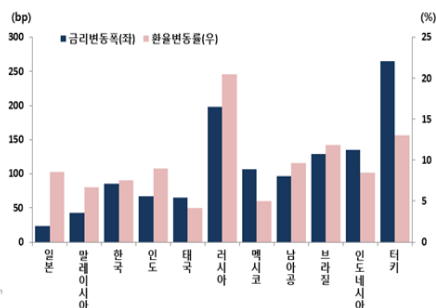
■ 연준이 초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밝혔으나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상존함.

〈그림 I-4〉 미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5〉 1~9월 주요국 금리 및 환율 변동폭



주: 금리는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기간 내 최고값-최저값임.

자료: Bloomberg.

## Box 2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 중국은 신용 팽창에 의한 과잉투자가 지속되어 왔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가 위축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표 I-3〉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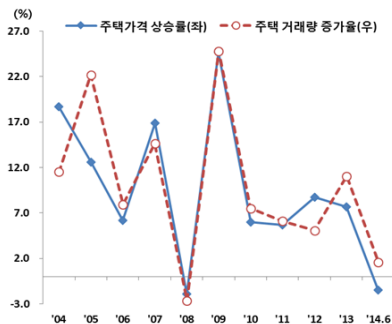
| 구분  | 2012 | 2013 | 2014(E) | 2015(F) |
|-----|------|------|---------|---------|
| 성장률 | 7.7  | 7.7  | 7.4     | 7.1     |
| 실업률 | 4.1  | 4.1  | 4.1     | 4.1     |

자료: IMF(2014. 10), World Economic Outlook.

■ 과잉투자에 의한 부동산 거품 및 기업부채 문제가 구조조정으로 현실화될 경우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지방재정 악화, 투자 및 소비 위축 등 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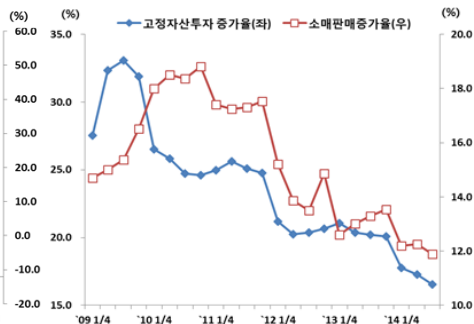
○ 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산업생산 및 소비 악화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금융완화를 단행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경기부양책 효과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6〉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추이



주: 전년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I-7〉 중국의 투자 및 소비 추이



자료: Bloomberg.

### Box 3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

-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이라크, 이스라엘-하마스 등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I-8〉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지역



자료: 국제금융센터.

- 3개의 지역은 국제 에너지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며 현재 군사적 충돌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양적완화정책 종료 등과 복합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표 I-4〉 전세계 상위 원유 생산 지역(2013년 기준)

(단위: 천 배럴/일, %)

| 구분        | 일 생산량  | 생산 비중 |
|-----------|--------|-------|
| 중동        | 27,170 | 30.2  |
| 북미        | 19,285 | 21.4  |
| 미국        | 12,304 | 13.7  |
| 유라시아      | 13,564 | 15.1  |
| 아시아 및 대양주 | 8,935  | 9.9   |
| 중앙 및 남미   | 7,942  | 8.8   |
| 유럽        | 3,790  | 4.2   |

자료: EIA; 삼성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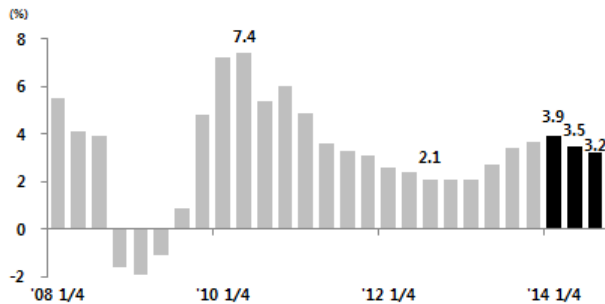
## 2. 국내경제

### 가. 경제성장

■ 2014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제한적인 회복과 설비투자 개선, 수출 증가 등으로 2013년 3.0%p에 비해 0.5%p 상승한 3.5% 성장할 전망이다.

○ 실질국내총생산은 2013년 하반기 성장세가 2014년 1/4분기까지 이어졌으나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되었음.

〈그림 I-9〉 GDP 성장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의 경우 2014년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4/4분기에는 민간소비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4분기에 비해 수출이 늘어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표 I-5〉 국내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13  |      |     |      |      | 2014 |     |                   |                   | 2015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sup>2)</sup> | 연간<br>(E)         | 연간<br>(F)         |
| 실질 GDP <sup>3)</sup> | 2.1   | 2.7  | 3.4 | 3.7  | 3.0  | 3.9  | 3.5 | 3.2               | 3.5 <sup>4)</sup> | 3.7               |
| 민간소비                 | 1.7   | 2.1  | 2.1 | 2.2  | 2.0  | 2.5  | 1.5 | 1.6               | 2.3 <sup>4)</sup> | 2.7 <sup>4)</sup> |
| 설비투자                 | -12.7 | -3.9 | 1.5 | 10.9 | -1.5 | 7.3  | 7.7 | 3.9               | 6.0               | 5.7 <sup>6)</sup> |
| 건설투자                 | 1.9   | 9.8  | 8.8 | 5.4  | 6.7  | 4.3  | 0.2 | 3.0               | 2.1               | 2.9               |
| 지식생산물투자              | 6.6   | 7.3  | 5.3 | 9.7  | 7.3  | 7.3  | 5.7 | 5.3               | 7.2               | 6.3 <sup>6)</sup> |
| 재화수출 <sup>7)</sup>   | 6.6   | 6.5  | 2.4 | 3.0  | 4.5  | 3.9  | 3.6 | 2.1               | 4.2 <sup>5)</sup> | 6.0 <sup>5)</sup> |
| 재화수입 <sup>7)</sup>   | -1.5  | 0.8  | 0.4 | 4.9  | 1.2  | 3.4  | 1.2 | 2.5               | 2.8 <sup>5)</sup> | 6.5 <sup>5)</sup>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2) 속보치.

3)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4) 2014년 3/4분기 민간소비(속보치)가 10월 전망 당시의 예상보다 부진하여 2014년과 2015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각각 0.3%p, 0.2%p 하향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14년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10월 전망치 3.6%보다 0.1%p 하락하였음.

5) 2014년 3/4분기 재화수출 및 재화수입(속보치)이 2014년 10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부진하여 2014년 재화수출 전망을 2.1%p, 재화수입 전망을 2.6%p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재화수출 전망을 1.0%p, 재화수입 전망을 0.5%p씩 하향 조정하였음.

6) 2015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10월 전망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0.4%p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1.7%p 하향 조정하였음.

7) F.O.B(본선인도가격)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5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대비 0.2%p 상승하는데 그친 3.7% 성장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건설투자도 주택거래 증가, 정부 SOC 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보다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가계부채 누증, 전세가격 상승, 고령화에 따른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 등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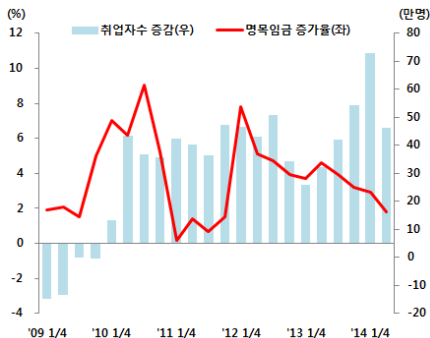
### 1) 민간소비

■ 2014년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원화 절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3%의 제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 상반기 민간소비는 1/4분기 고용 호조 등으로 소폭 회복하였으나 4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침.

○ 하반기 경제 활성화 대책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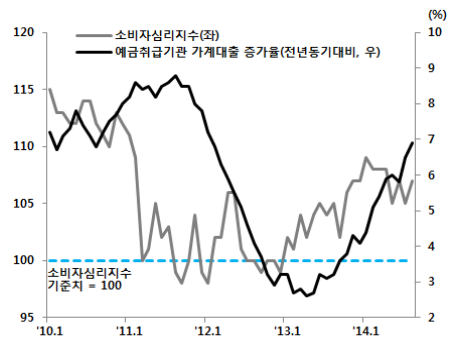
〈그림 I-10〉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 증가율



주: 취업자 수 증감,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1〉 소비자심리지수 및 가계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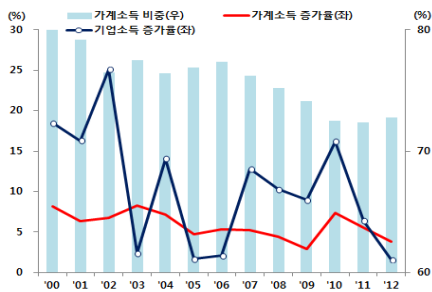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주거환경 변화,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 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전세가 상승 및 월세 비중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있음.

- 명목임금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한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기여도도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로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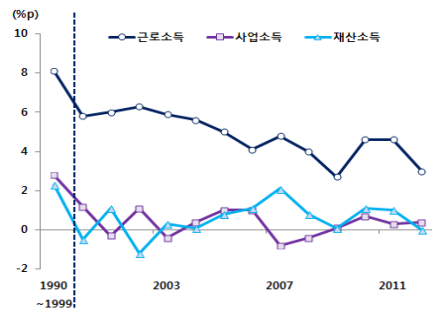
〈그림 I-12〉 가계소득 비중 및 가계소득, 기업소득 증가율



- 주: 1) 가계소득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을 말함.  
 2) 가계소득 비중 = 가계소득/(가계소득+기업소득)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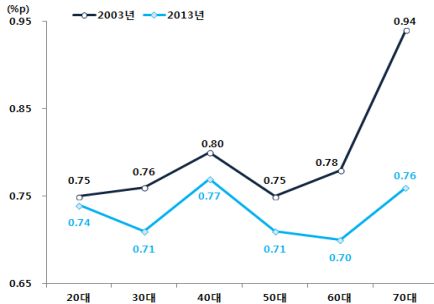
〈그림 I-13〉 가계소득 원천별 기여도



- 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근로소득(피용자보수), 재산소득, 사업소득(영업잉여) 원천 합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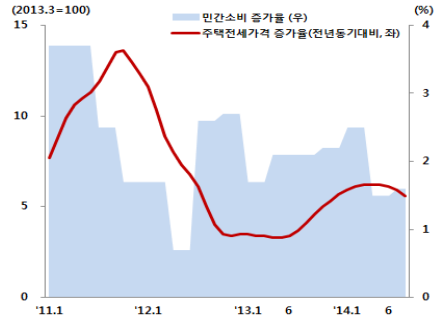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부담 확대로 전 연령대의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음.
- 특히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음.

〈그림 I-14〉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소득 - 비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KDI 재인용.

〈그림 I-15〉 주택 전세가격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 2014년 8월 주택 대출 규제 완화<sup>10)</sup>와 기준금리 인하<sup>11)</sup>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된 것<sup>12)</sup>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계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임.

- 2015년 민간소비는 실질국내총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개선될 것이나 명목임금 증가율 둔화와 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 등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취업자 수 증가세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중·장년층 및 여성 중심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세와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누증 및 노후대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10) 2014년 7월 정부는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LTV 및 DTI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70% 및 60%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2014년 8월부터 시행하였음. 이번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음.

11) 한국은행은 2014년 8월과 10월,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 이에 따라 2014년 10월 현재 기준금리는 2.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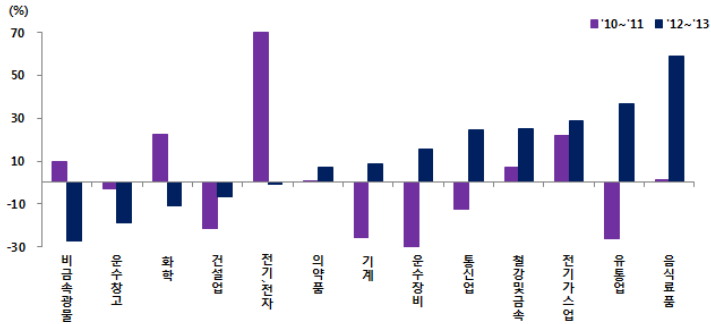
12)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전월대비 증감: 2014년 5월 2.6조 원 → 2014년 6월 3.9조 원 → 2014년 7월 3.9조 원 → 2014년 8월 5.1조 원

## 2) 설비투자

■ 2014년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세 지속, 전기·전자 업종 수익성 개선으로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 2012~2013년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성향이 급감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부진하였으나 2012년 이후 전기·전자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설비투자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 I-16〉 업종별 설비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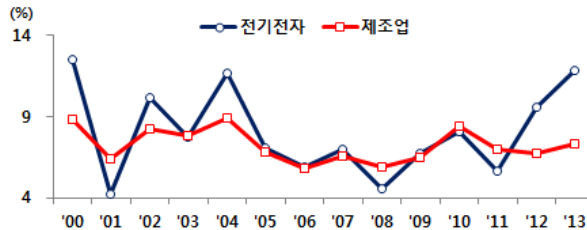


주: 1) 상장기업 대상.

2) 설비투자액은 현금흐름표상 “유형자산취득을 위한 현금유출액 -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액”으로 계산하였음. 설비 관련 자산을 구하기 위해 유형자산에서 설비와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구축물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현금흐름을 차감하여야 함. 그러나 Dataguid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그림 사용)는 “유형자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구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데이터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음.

자료: Dataguide Pro.

〈그림 I-17〉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주: 상장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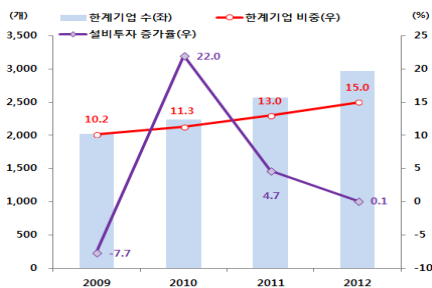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Pro.

- 상반기 설비투자는 2013년 상반기 8.3% 감소하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세 등으로 7.5% 증가하였음.
- 하반기 설비투자는 재고율 상승, 자동차 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 그러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능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하락하고 재고율이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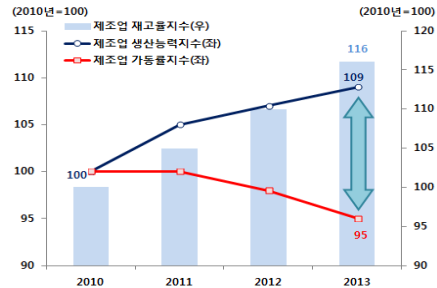
〈그림 I-18〉 한계기업 현황



주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한국은행(201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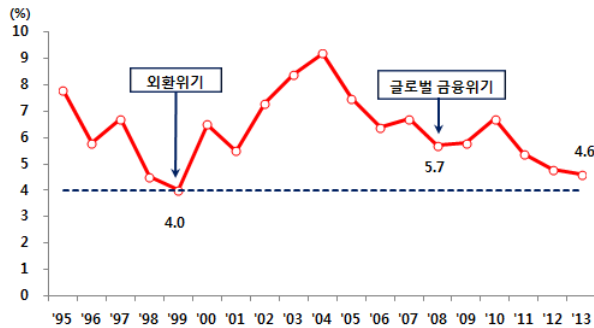
〈그림 I-19〉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 기업 재고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4. 4).

-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3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4.6%로 하락하는 등 투자유인이 부재한 상황임.
  -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공급이 조정되지 못할 경우 매출원가가 상승해 기업 수익성이 하락함.

〈그림 I -20〉 매출액영업이익률 장기추세



주: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자료: 한국은행(2014, 4).

- 2015년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5.7% 증가할 전망이다.
  -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설비투자 개선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 그러나 민간소비 부진 지속, 한계기업 비중 확대, 이에 따른 제조업 전반의 유희설비 증가<sup>13)</sup> 및 수익성 감소, 기업의 부채 조정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음.

### 3) 건설투자

- 2014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에도 2013년 수주 부진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4.6%p 하락한 2.1%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상반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조기 집행,<sup>14)</sup>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에도 2/4분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상업용 건물 투자 감소 등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침.

13) 제조업평균가동률(%): 2012년 78.5 → 2013년 76.2 → 2014년 1/4분기 77.2 → 2/4분기 76.3 → 3/4분기 75.8

14) 정부는 상반기 중 2014년 재정지출예산의 58.1%를 집행하였음(한국은행(2014,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하반기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토목 부문 부진에도 상반기 건설수주 증가에 따른 건축부문 호조로 상반기보다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21〉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2015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sup>15)</sup>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른 재건축 및 신규 주택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2.9% 증가할 전망이다.

## 다.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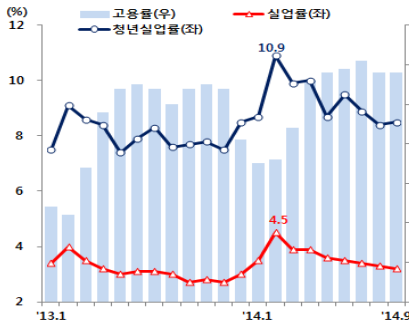
- 2014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상반기 장년층 인구 증가 및 노동시장 잔류,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고, 고용률도 상승하였음.
    -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sup>16)</sup>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 하반기 고용시장은 정부 정책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5) 2015년 정부 SOC 예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음(기획재정부).

16)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구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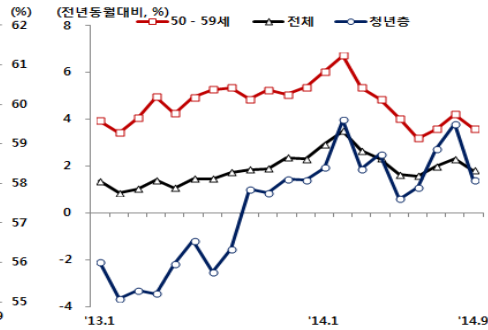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늘어났으나 명목임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가계소득 개선은 소폭에 그치고 있음.

〈그림 I-22〉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그림 I-23〉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고용여건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14년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인구고령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자영업의 경우 내수 부진과 경쟁심화로 인한 업황 부진,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표 I -6〉 고용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13 |      |      |      |      | 2014 |      |      |           | 2015<br>(F)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연간<br>(E) |             |
| 총취업자                 | 1.1  | 1.3  | 1.7  | 2.2  | 1.6  | 3.0  | 1.8  | 2.0  | 2.3       | 2.5         |
| 고용률 <sup>2)</sup>    | 57.7 | 60.2 | 60.3 | 60.0 | 59.5 | 58.8 | 60.8 | 60.9 | 60.1      | 60.6        |
| 실업률 <sup>3)</sup>    | 3.6  | 3.1  | 3.0  | 2.8  | 3.1  | 4.0  | 3.7  | 3.3  | 3.5       | 3.3         |
| 청년 <sup>4)</sup> 실업률 | 8.4  | 7.9  | 7.9  | 7.9  | 8.0  | 9.8  | 9.4  | 8.6  | 9.3       | 9.4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2)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라. 물가

■ 2014년 소비자물가는 지난 2년간의 기저효과와 완만한 생산자물가 회복세로 2013년보다 0.3%p 상승한 1.6% 오를 전망이나 여전히 2%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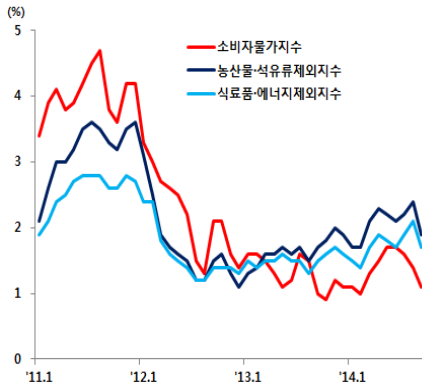
○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 등으로 1.5% 상승하는데 그침.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내수 부진 지속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3/4분기 1.4% 상승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그러나 농산물·식품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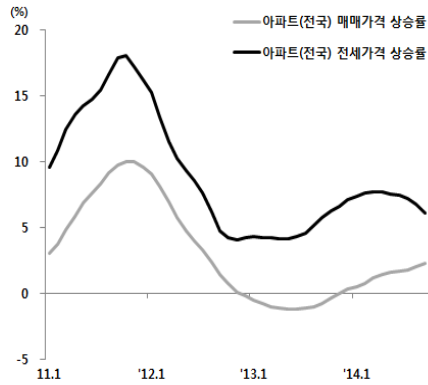
–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는 수요 측면보다는 원자재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에 기인함.

〈그림 I-24〉 근원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25〉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주: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국민은행.

〈표 I-7〉 물가 변동 요인

(단위: %)

| 구분               |                       | 2013 |      |      | 2014 |      |      |      |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상반   | 1/4  | 2/4  | 3/4  |
| 수요<br>요인         | 경제성장률                 | 3.0  | 2.4  | 3.5  | 3.7  | 3.9  | 3.6  | 3.2  |
|                  | 해외수요(상품수출)            | 4.6  | 6.5  | 2.7  | 3.7  | 3.9  | 3.5  | 0.0  |
|                  | 국내수요 <sup>1)</sup>    | 2.8  | 1.8  | 3.8  | 2.9  | 3.6  | 2.2  | 2.5  |
|                  | 명목임금                  | 3.9  | 4.2  | 3.6  | 2.4  | 2.9  | 1.8  | -    |
| 공급<br>(비용)<br>요인 | 원유도입단가 <sup>2)</sup>  | -4.0 | -7.2 | -0.6 | 0.3  | -3.0 | 3.8  | -0.3 |
|                  | 기타원자재가격 <sup>3)</sup> | -1.0 | 0.5  | 2.9  | -2.7 | -4.4 | -0.9 | -3.0 |
|                  | 원/달러 환율               | -2.8 | -3.4 | -2.3 | -4.8 | -1.4 | -8.2 | -7.8 |
|                  | 농축수산물가격               | -0.6 | 0.8  | -2.1 | -3.5 | -4.7 | -2.2 | -3.3 |
|                  | 주택가격 <sup>4)</sup>    | 0.4  | -0.2 | 0.6  | 0.9  | 0.6  | 0.3  | 0.2  |

주: 1) 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지식생산물투자

2) 달러 기준.

3) IMF 기타 원자재(원유제외) 가격지수.

4) 국민은행 주택가격기준, 전기말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IMF,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특별한 물가 상승 요인이 없어 2014년 1.6% 대비 0.4%p 상승한 2.0%에 그칠 전망이다.
- 경기가 소폭 개선되더라도 명목 임금 상승률 하락세와 민간 소비 부진이 지속되어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원자재 가격 하락세 등으로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I-8〉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단위: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E) <sup>1)</sup> | 2015(F) <sup>1)</sup>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3.0  | 4.0  | 2.2  | 1.3  | 1.6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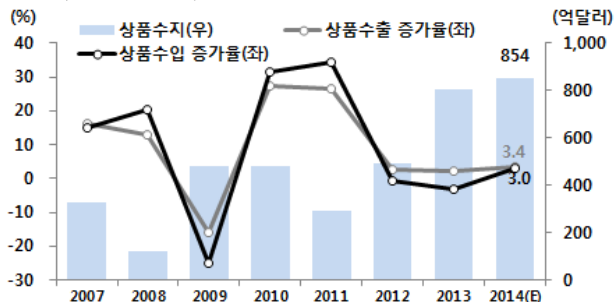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자료: 통계청, 「물가동향」.

## 마. 대외거래

- 2014년 견조한 수출 증가세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이나 해외여행 출국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32억 8,000만 달러 줄어든 766억 달러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I-26〉 수출입 증가율과 상품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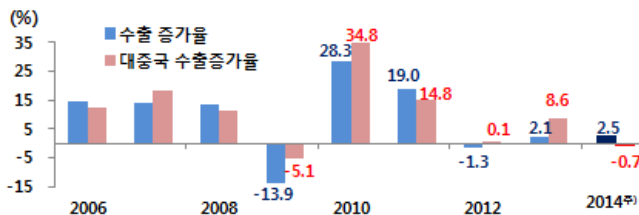


주: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상반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39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14년 상반기 상품수출은 미국 등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3.7% 증가하였음.
  - 그러나 수입의 경우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하락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0.3% 감소하였음.
- 하반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면서 수입도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 對중국 수출 회복세로 수출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이나 증가폭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 중국의 對유로존 및 아세안 지역 수출 둔화와 중국 내 재고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2014년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음.

〈그림 I-27〉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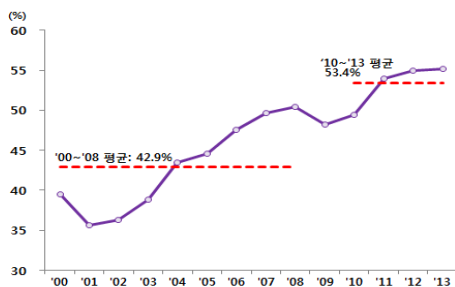
주: 1) 2013년은 1~10월 수출액임.

2) 통관기준 수출액.

자료: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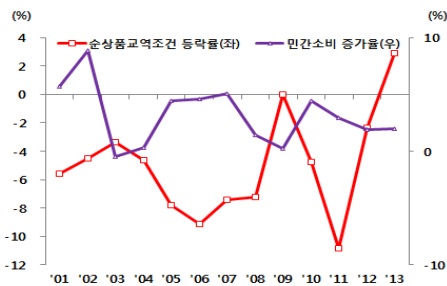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14년 상품수지는 2013년보다 48억 3,000만 달러 증가한 854억 달러, 경상수지는 2013년보다 32억 8,000만 달러 감소한 76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지 확대 원인은 내수부진에 의한 GDP 대비 수출비중 확대와 교역조건 개선 등임.

〈그림 I -28〉 GDP대비 수출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I -29〉 교역조건 등락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경상수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흑자 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 2015년 수출은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이로 인한 교역량 증가로 전년대비 0.6%p 상승한 4.0% 증가할 전망이다.

○ 2015년 수입의 경우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0%p 상승한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원화 강세에 따른 해외여행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2014년 88억 달러보다 30억 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표 I -9〉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E) <sup>1)</sup> | 2015(F) <sup>1)</sup> |
|------------------|---------|---------|---------|---------|-----------------------|-----------------------|
| 경상수지             | 288.5   | 186.6   | 508.4   | 798.8   | 766.0                 | 660.0                 |
| 상품수지             | 479.2   | 290.9   | 494.1   | 805.7   | 854.0                 | 778.0                 |
| 수출 <sup>2)</sup> | 4,637.7 | 5,871.0 | 6,035.1 | 6,171.3 | 6,380.0               | 6,635.2               |
| (증가율)            | (27.4)  | (26.6)  | (2.8)   | (2.3)   | (3.4)                 | (4.0)                 |
| 수입 <sup>2)</sup> | 4,158.5 | 5,580.1 | 5,541.0 | 5,365.6 | 5,526.0               | 5,857.6               |
| (증가율)            | (31.6)  | (34.2)  | (-0.7)  | (-3.2)  | (3.0)                 | (6.0)                 |
| 서비스수지            | -142.4  | -122.8  | -52.1   | -79.3   | -88.0                 | -118.0                |

주: 1) 보협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2)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 Box 4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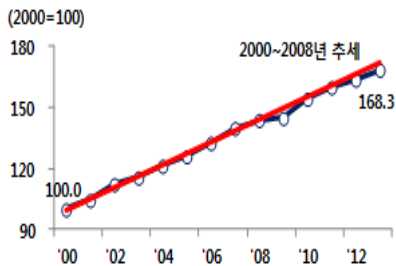
■ 국내 경제성장 회복세는 금융위기 이전 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함.

○ 2000년 GDP 수준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주요국의 성장세를 비교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임.

■ 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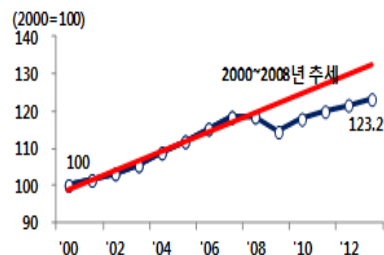
○ 보험산업도 이제는 저성장·저금리를 당연한 경제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업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임.

〈그림 I-30〉 한국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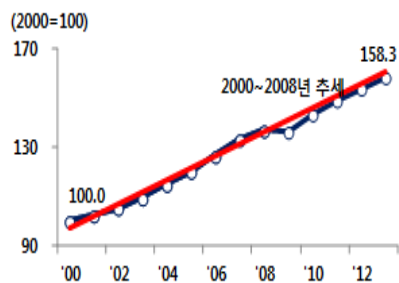
〈그림 I-31〉 선진국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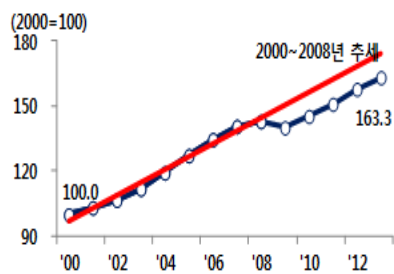
# Box 4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평가(계속)

## 〈그림 I-32〉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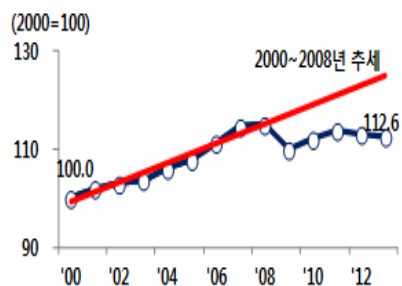
자료: IMF.

## 〈그림 I-33〉 미국



자료: IMF.

## 〈그림 I-34〉 유럽



주: 유럽연합 주요 18개국 기준임.  
자료: IMF.

## 〈그림 I-35〉 일본



자료: IMF.

### 3. 국내금융시장

- 한국은행은 2014년 10월 1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함.
  - 한국은행은 2014년 8월 14일 2013년 2/4분기부터 5분기 연속 2.50%를 유지해 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2.00%로 추가 인하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하여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였으나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변화, 유로 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신흥시장국 성장세 약화, 국내 경제 내수 개선 미흡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0%로 하향 조정함.
  - 실질기준금리는 2013년 평균 1.26%, 2014년 1/4~3/4분기 평균 1.05%를 기록함.

〈표 I-10〉 기준금리

(단위: %)

| 구분     | 2013 |      |      |      | 2014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기준금리   | 2.75 | 2.50 | 2.50 | 2.50 | 2.50 | 2.50 | 2.25 |
| 실질기준금리 | 1.19 | 1.28 | 1.14 | 1.43 | 1.37 | 0.90 | 0.87 |

주: 실질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한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기준금리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금리 변동폭은 축소됨.
  - 2014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동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주요 신흥시장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시장국의 정정 불안 등의 영향으로 크게 변동하였으나 국내 장기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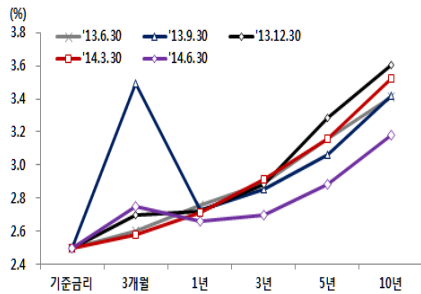
- 장기시장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으로 낮아진 반면, 단기시장금리는 2013년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직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됨.

〈그림 I-36〉 한국·미국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37〉 국고채 수익률 곡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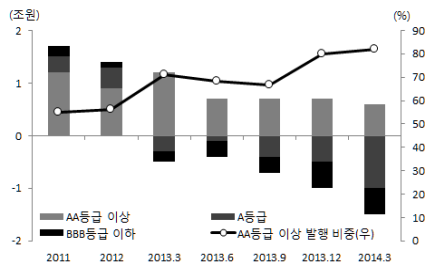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14년 위험프리미엄은 2013년에 비하여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며 감소하였으나 등급 간 스프레드는 우량회사채 편중 발행으로 인하여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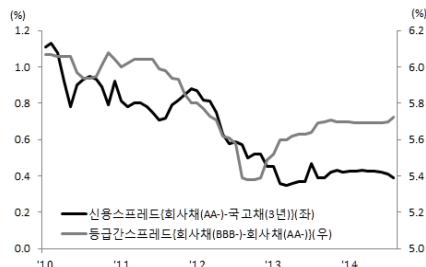
- 회사채시장에서 우량물 위주의 발행 편중 현상의 심화로 회사채 시장의 신용 차별이 심화되어 등급 간 스프레드가 확대 됨.

〈그림 I-38〉 회사채 순발행 현황 및 우량물 발행비중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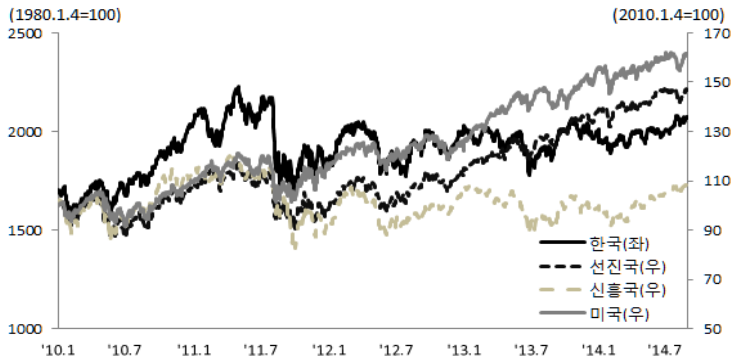
〈그림 I-39〉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하반기에는 국고채 금리 하향추세가 지속되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간 2.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국고채 금리는 국내 기준금리 하락,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원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2014년 하반기 국고채 금리는 선진국 경기 회복 기대 및 달러화 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신흥국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40〉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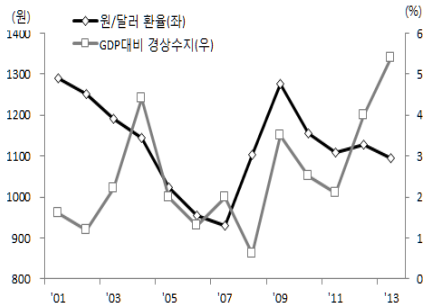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14년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국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2014년 선진국 주식시장은 경기회복 기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기업의 실적부진,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거래금액은 2013년 8월 80조 원 수준이었으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신흥국 경기 둔화,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 혼재하며 2014년 8월 82조 원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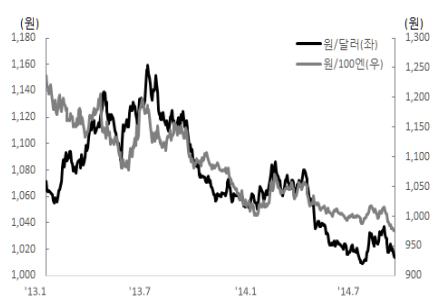
- 2015년에는 국내 및 세계경제 회복, 미국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41〉 GDP대비 경상수지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42〉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1~8월 원/달러 환율은 2013년 평균 환율 1,095.0원에 비해 52.3원 절상된 평균 1,042.6<sup>17)</sup>원을 기록하였음.
- 2014년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통화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하락요인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나타냄.
- － 2014년 8월 말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4.1%이며 일본 엔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2.8%임.
- 2014년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어 2014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49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의 환율 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17) 기준 환율.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채 금리는 2015년 상반기 하락세에서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감소 및 신흥국 통화 불안 가능성 등으로 2014년 1,049원보다 소폭 하락한 1,04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15년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기대의 영향으로 현 수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평균은 2014년 평균 2.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표 I -11〉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 구분           | 2014  |       |       | 2015  |       |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 우량회사채 3년 수익률 | 3.0   | 3.3   | 2.7   | 3.0   | 2.9   | 3.1   |
| 국고채 3년 수익률   | 2.6   | 2.9   | 2.3   | 2.6   | 2.5   | 2.7   |
| 원/달러(평균)     | 1,049 | 1,050 | 1,048 | 1,040 | 1,050 | 1,030 |

〈표 I-12〉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종합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E) <sup>1)</sup> | 2015(F) <sup>1)</sup> |
|------------------|---------|---------|---------|---------|-----------------------|-----------------------|
| 실질GDP            | 6.5     | 3.7     | 2.3     | 3.0     | 3.5                   | 3.7                   |
| 민간소비             | 4.4     | 2.9     | 1.9     | 2.0     | 2.3                   | 2.7                   |
| 설비투자             | 22.0    | 4.7     | 0.1     | -1.5    | 6.0                   | 5.7                   |
| 건설투자             | -3.7    | -3.4    | -3.9    | 6.7     | 2.1                   | 2.9                   |
| 지식생산물투자          | 7.9     | 6.9     | 8.6     | 7.3     | 7.2                   | 6.3                   |
| 재화수출             | 13.5    | 17.1    | 4.4     | 4.5     | 4.2                   | 6.0                   |
| 재화수입             | 19.1    | 17.6    | 1.9     | 1.2     | 2.8                   | 6.5                   |
| 고용률              | 58.7    | 59.1    | 59.4    | 59.5    | 60.1                  | 60.6                  |
| 실업률              | 3.7     | 3.4     | 3.2     | 3.1     | 3.5                   | 3.3                   |
| 경상수지             | 288.5   | 186.6   | 508.4   | 798.8   | 766.0                 | 660.0                 |
| 상품수지             | 479.2   | 290.9   | 494.1   | 805.7   | 854.0                 | 778.0                 |
| 수출 <sup>2)</sup> | 4,637.7 | 5,871.0 | 6,035.1 | 6,171.3 | 6,380.0               | 6,635.2               |
| (증가율)            | (27.4)  | (26.6)  | (2.8)   | (2.3)   | (3.4)                 | (4.0)                 |
| 수입 <sup>2)</sup> | 4,158.5 | 5,580.1 | 5,541.0 | 5,365.6 | 5,526.0               | 5,857.6               |
| (증가율)            | (31.6)  | (34.2)  | (-0.7)  | (-3.2)  | (3.0)                 | (6.0)                 |
| 서비스수지            | -142.4  | -122.8  | -52.1   | -79.3   | -88.0                 | -118.0                |
| 소비자물가            | 3.0     | 4.0     | 2.2     | 1.3     | 1.6                   | 2.0                   |
| 국채(3년)<br>수익률    | 3.7     | 3.6     | 3.1     | 2.8     | 2.6                   | 2.6                   |
| 우량회사채(3년)<br>수익률 | 4.7     | 4.4     | 3.8     | 3.2     | 3.0                   | 3.0                   |
| 원/달러 환율          | 1,156   | 1,108   | 1,127   | 1,095   | 1,049                 | 1,040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2014(E)) 및 전망치(2015(F))임.

2) F.O.B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Ⅱ. 국내보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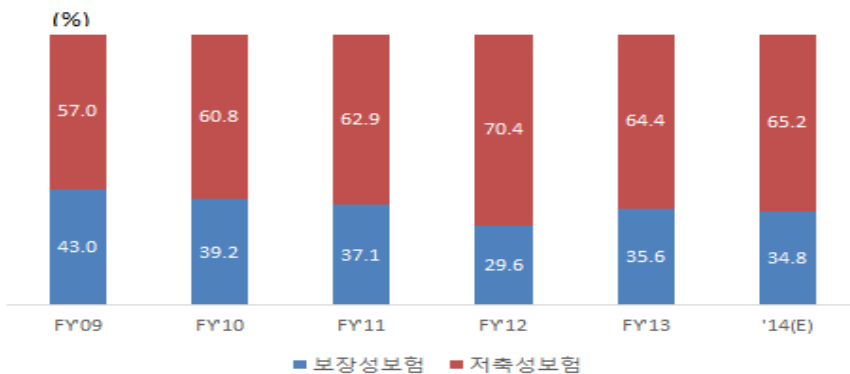
### 1. 생명보험

#### 가. 개인보험

■ 2014년<sup>18)</sup>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1/4분기까지 크게 이어지면서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보장성보험은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FY2012 세제개편(안)<sup>19)</sup>의 영향으로 2013년 1/4분기까지 즉시연금 일시납 보험료가 급증했던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가 이어짐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것임.

〈그림 Ⅱ-1〉 개인보험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비중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2014(E)는 2014년 1~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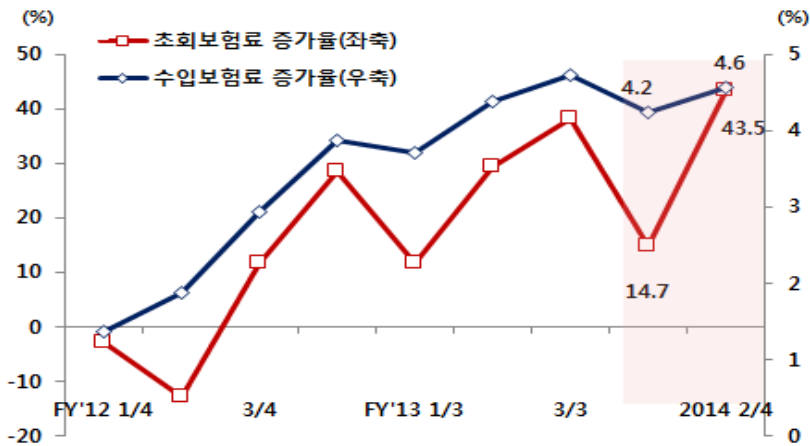
19)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는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축소됨.

- 2015년<sup>20)</sup>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저축성보험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2014년에 비해 4.4%p 상승한 4.8% 증가가 전망됨.
- 개인보험 중 보장성보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FY2013에는 35.6%로 전년대비 6.0%p 회복하였으며 2014년은 34.8%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 1) 보장성보험(종신·CI·건강·변액종신) 현황과 전망

- 2014년 상반기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보험의 신계약 증가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 전체로는 5.7%의 성장률이 예상됨.

〈그림 II-2〉 보장성보험 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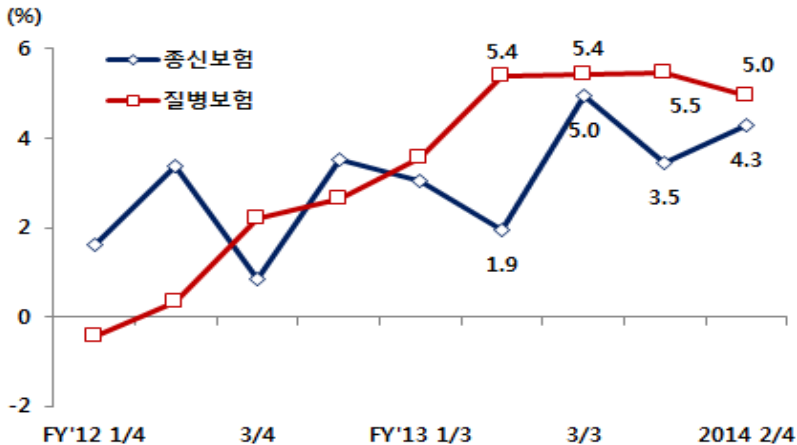


주: FY'12 분기 성장률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2015년(F)은 2015년 1~12월까지임.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3 3/3분기 4.7%까지 성장률이 확대된 이후 2014년 1/4분기 3.4%, 2/4분기에는 4.6% 성장하였으며, 초회보험료는 2/4분기 4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2/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후 FY2013 2/3분기에는 5.4%까지 성장하였고 2014년 들어 1/4분기 5.5%, 2/4분기 5.0%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3〉 보장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주: FY'12 분기 성장률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수요 창출 노력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혁신 상품 부재와 소비자 권익 강화로 판매가 제한되면서 4.5% 성장이 전망됨.

- FY2013 하반기 이후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 노력에 따라 노령층, 유병자대상 질병보험과 종신보험 신계약이 증가되었음.

– 2014년 상반기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5.2%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장기간병보험은 19.4% 성장하고 암보험은 3.9% 성장하는 등 노령층 대상 보험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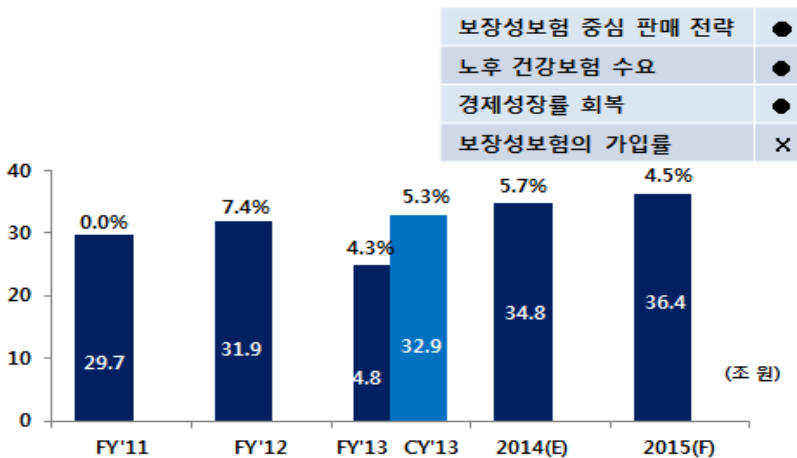
매가 증가하였음.

- 또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보장성보험 상품의 판매중단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장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대형사 위주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가 중단되고 위험률관리 차원의 암 보험 보장이 축소되는 등 판매가 제한되는 현상들이 나타남.

〈그림 Ⅱ-4〉 보장성보험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FY'11실적에는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제외됨.

2) 2014(E)는 2014년 1~12월이고 2015(F)는 2015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 2015년 경제성장률 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보장성보험 가입률도 이미 확대되어<sup>21)</sup> 혁신적인 상품이 없는 한 성장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21) 보험연구원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질병보험 개인별 가입률은 2013년 67.9%에서 2014년 77.6%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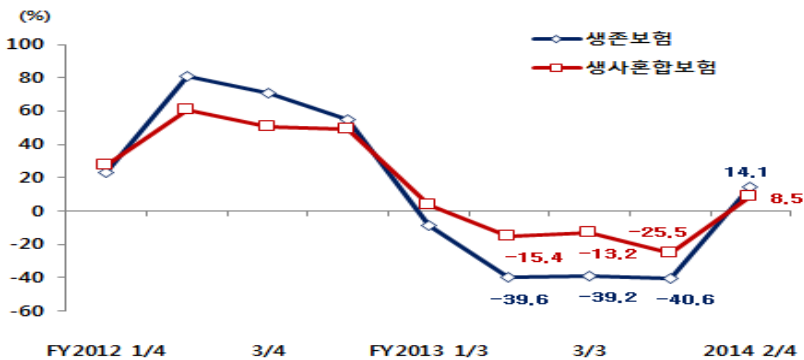
## 2) 저축성보험(생존 · 생사혼합 · 변액연금 · 변액유니버설) 현황과 전망

■ 2014년 저축성보험은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FY2012의 일반저축성보험 기저 효과가 2014년 1/4분기까지 크게 나타남에 따라 2/4분기부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2%의 성장이 예상된다.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012년 8월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3년 2월까지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2014년 1/4분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음.

– 생존보험 중 일반연금은 2014년 1/4분기 -46.4%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어졌으나 2/4분기는 18.1%의 성장률로 반전하였음.

〈그림 II -5〉 일반저축성보험 성장률 추이



주: 농협생명을 제외한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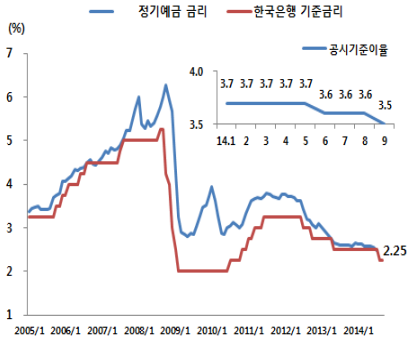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도 생존보험과 유사한 성장률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리경쟁력 유지와 상대적 비과세 혜택으로 성장률 증가가 예상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은 대출확대에 대한 우려로 예금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기예금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금리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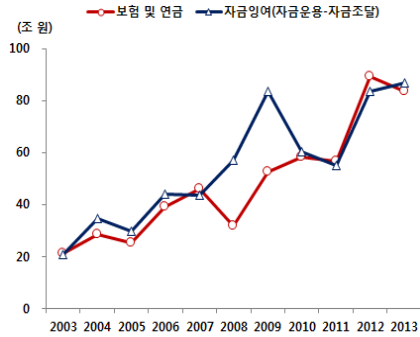
– 또한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기조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노후대비를 위해 가계 자금잉여 대부분이 보험 및 연금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그림 II-6〉 기준금리와 정기예금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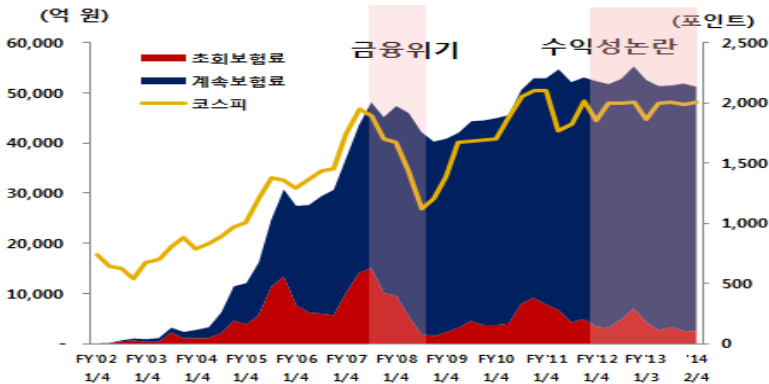


〈그림 II-7〉 가계 잉여 및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가액



- 2014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이루면서 횡보세를 지속함에 따라 신계약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할 것임.

〈그림 II-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최근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전후로 횡보세를 지속함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자들도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액보험은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FY2013 2/3분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4년 2/4분기에는 -2.5% 성장률을 보임.
- 특히 변액연금은 FY2012 1/4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FY2013 2/3분기 이후에는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체 변액보험시장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음.
- 반면 변액유니버셜은 2014년 1/4분기 2.4%, 2/4분기 4.4%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변액보험 내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소멸, 금리 경쟁력 유지, 상대적 비과세 혜택 부각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요가 살아나면서 5.0%의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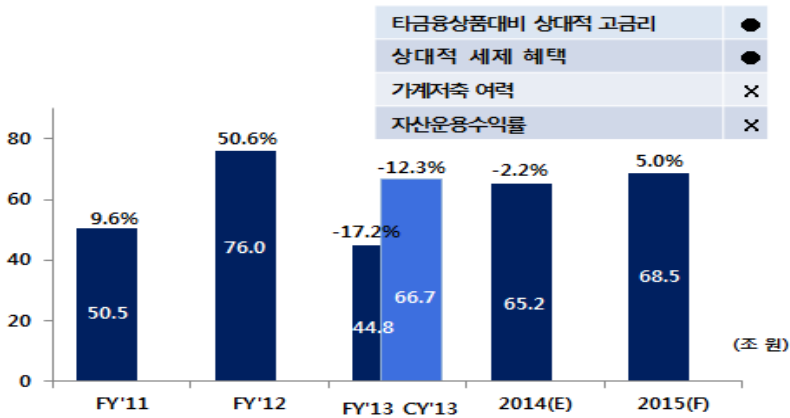
○ 2015년에는 2014년까지 이어진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예년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전망됨.

-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실적과 비교되는 2014년 1/4분기 일반저축성보험 실적은 34.4% 감소한 반면 2/4분기는 11.5% 성장하면서 기저효과가 소멸됨.

○ 최근 금리는 기준금리가 2.0%로 하락함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락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3.5%대인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 또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은 상대적인 세제혜택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1월 시행과 함께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이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함.

〈그림 II-9〉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 주: 1) FY'12 이후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FY'13은 2013년 4~12월이고 '14(E)는 2014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임.

-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은 저축성보험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성장률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축성보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이 하반기에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신계약 성장보다는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이 예상됨.

〈표 II-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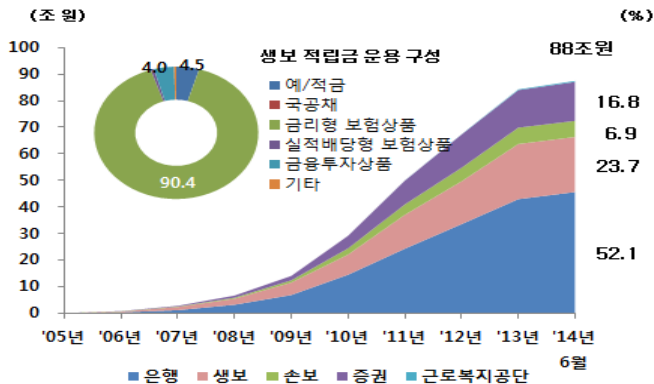
| 종목  | FY2012    |      | FY2013  |       | 2014(E)   |      | 2015(F)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보장성 | 319,188   | 7.4  | 248,094 | 4.3   | 348,094   | 5.7  | 363,758   | 4.5 |
| 저축성 | 759,741   | 50.6 | 448,383 | -17.2 | 652,111   | -2.2 | 684,739   | 5.0 |
| 개인계 | 1,078,929 | 34.6 | 696,477 | -10.6 | 1,000,205 | 0.4  | 1,048,497 | 4.8 |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3) FY'12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4)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함.  
 5) 20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3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 나.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2014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효과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에 따른 적립금 납입 증가로 FY2013의 고성장<sup>22)</sup>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2/4분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13년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sup>22)</sup> 비율 상향<sup>23)</sup> 조정 효과가 지속되면서 65.1%의 고성장을 시현함.
- 또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단계적 축소<sup>24)</sup>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 유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4년 6월 현재 생명보험이 23.7%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5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10〉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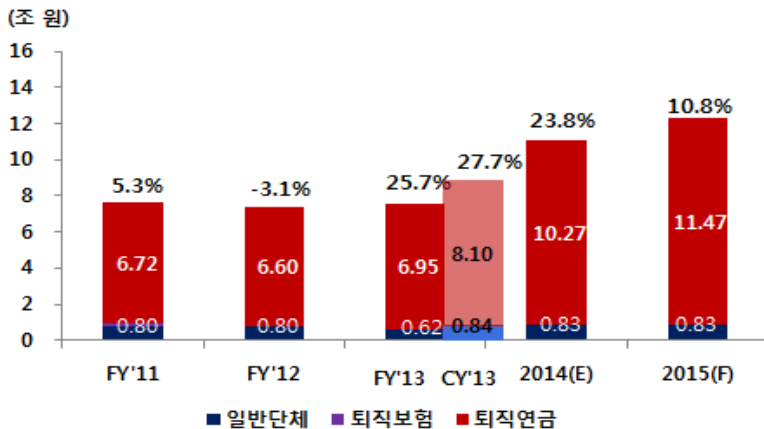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의 소정 비율 이상을 매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함.
- 23) 최소적립비율은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60%,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70%,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80%, 2018년 1월 1일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임.
- 24)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 초부터 완전히 폐지됨(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이후 0%).

- 2015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의 성장이 정체하겠으나 퇴직연금 시장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수혜로 확대되면서 생명보험권 퇴직연금 보험료도 10.8% 성장할 전망이다.
- 일반단체보험은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시장 정체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2015년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 비율 상향(2015년 말까지 70%),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추가 축소 등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가입 등을 포함하는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퇴직연금 시장 성장의 외형적 성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금융업권 간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II-11〉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20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5(F)는 2015년 1~12월까지의 실적임.

2) FY'13은 2013년 1~12월 실적이며, 전년동기와 비교함.

## 다. 생명보험 종합

-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저성장하고 단체보험은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가 이어지면서 0.4%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은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23.8%의 고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단체보험이 퇴직연금 위주로 고성장하면서 2014년에 비해 3.0%p 상승한 5.4% 성장이 전망됨.
  - 개인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성장세를 회복하고 보장성보험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4.8%의 성장이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요 창출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도적 혁신상품 부재와 가입률 제고 등으로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경쟁력 유지와 상대적 세제 혜택 등으로 예년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당분간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단체보험의 경우 일반단체보험은 감소할 것이나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하면서 10.8% 성장할 전망이다.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       | 2014(E)   |      | 2015(F)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개인 | 1,078,929 | 34.6 | 696,477 | -10.6 | 1,000,205 | 0.4  | 1,048,497 | 4.8  |
| 단체 | 74,156    | -3.1 | 75,891  | 25.7  | 111,027   | 23.8 | 122,977   | 10.8 |
| 합계 | 1,153,086 | 31.3 | 772,367 | -8.0  | 1,111,232 | 2.4  | 1,171,474 |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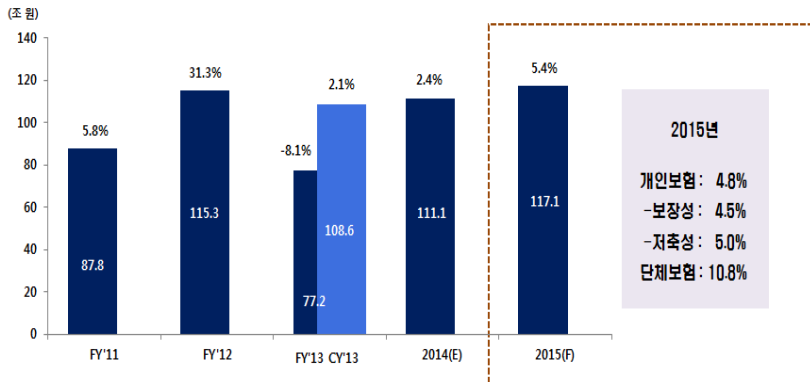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3) FY'14(E)는 2014년 1~12월 실적이고, 2013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4) 2015(F)는 2015년 1~12월이고, 2014년 1~12월 실적과 비교함.

〈그림 II-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1) FY'12부터 농협생명보험 실적이 포함됨.

2) 2014(E)는 2014년 1~12월이고 '15(F)는 2015년 1~12월까지임.

3) CY'13은 2013년 1~12월임.

■ 2014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기저효과 여파로 인해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에는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13〉 명목GDP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 2015년 생명보험 전망에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존재함.

- 첫째, 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처럼 과거 수요를 이끌었던 혁신적 신상품이 부재한다면 수요창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둘째, 2015년에도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8회 경험생명표도 적용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가격도 상승하여 판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셋째, 금융시장이 박스권 내에 횡보세를 탈출하지 못하고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지 못한다면 변액보험 수요도 저조할 수 있음.
- 넷째,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시장 확대정책의 최종 실행 여부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금융권의 경쟁에 따라 보험권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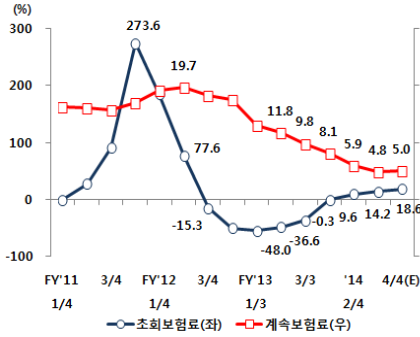
## 2. 손해보험

### 가. 장기손해보험

- 2014년<sup>25)</sup>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으로 6.1% 증가가 예상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으로 제도개선이 반영되기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 신규수요가 급증하였고, 제도시행 이후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신규수요가 급감한 바 있음.
  - 장기저축보험 초회보험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4년 들어 일부 회사들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타 금융권 저축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다 비과세 혜택의 장점도 존재하여 상품 경쟁이 심화된 바 있음.
    -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이와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의 수요 확대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월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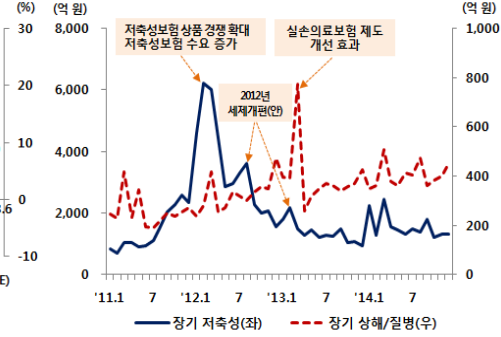
25)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적 대비 증가율이며,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임.

〈그림 II-14〉 장기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5〉 저축성/상해·질병 초회보험료(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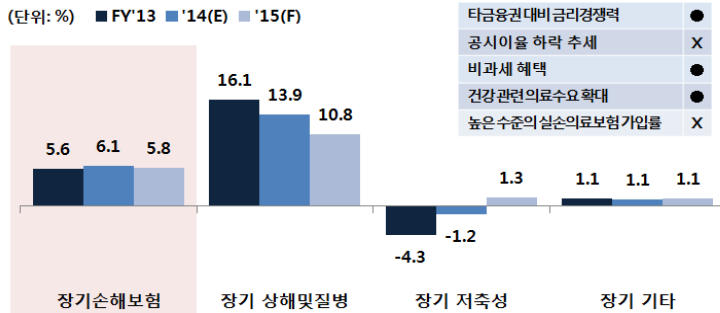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의 제한적 증가가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의료수요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 등이 신규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높은 수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타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저축 여력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임.

〈그림 II-1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표 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상해·질병            | 166,786 | 14.2 | 142,314              | 16.1 | 212,459                  | 13.9 | 235,481                  | 10.8 |
| 저축성              | 124,559 | 27.8 | 89,300               | -4.3 | 119,081                  | -1.2 | 120,605                  | 1.3  |
| 기타 <sup>3)</sup> | 110,551 | 12.9 | 83,864               | 1.1  | 112,675                  | 1.1  | 113,936                  | 1.1  |
| 장기손보             | 401,896 | 17.7 | 315,478              | 5.6  | 444,216                  | 6.1  | 470,022                  | 5.8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 나.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4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2.6%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15.9%의 고성장이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sup>26)</sup>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의 효과 약화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변경에 따른 신규수요 실적 부진으로 2.6% 감소가 예상됨.

– 2011년 1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개인연금의 신규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효과가 약화되어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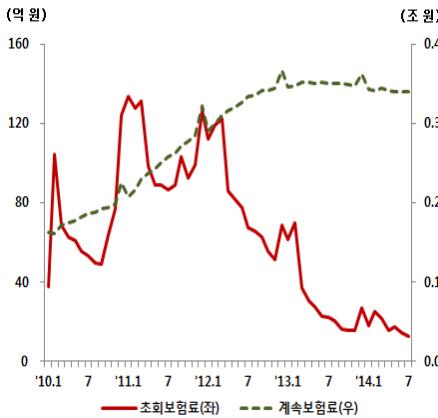
– 2013년부터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예정신계약비가 생명보험회사 300%, 손해보험회사 500%에서 생·손보 모두 300%로 인하여 대면채널의 연금저축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었음.<sup>27)</sup>

26)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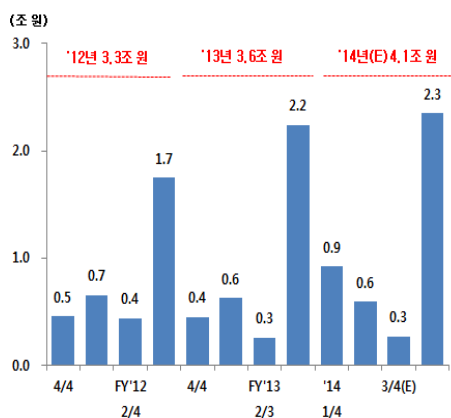
27)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참조.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sup>28)</sup> 조정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그림 II-17〉 개인연금 월별 보험료



〈그림 II-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 2015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지속적인 신규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여력 약화로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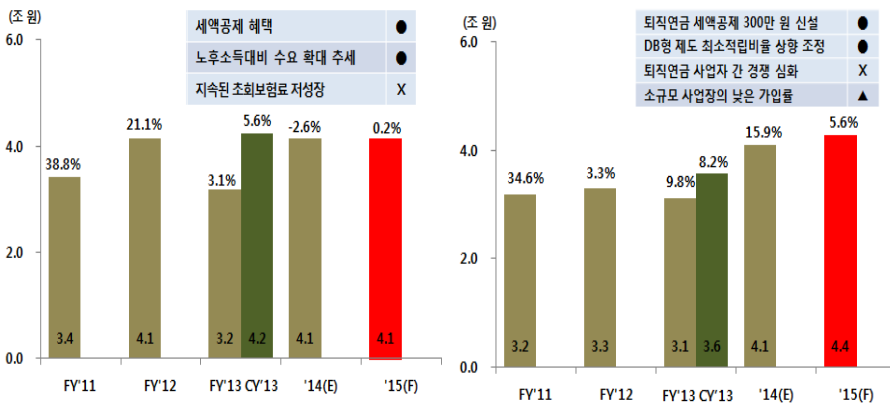
- 그러나 2012년부터 계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계속보험료 성장 여력은 약화되어 있어 2015년에도 0.2%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5.6% 증가가 전망됨.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2012. 7. 26 ~ 2013. 12. 31까지 60%, 2014. 1. 1 ~ 2015. 12. 31까지 70%, 2016. 11 ~ 2017. 12. 31까지 80%로 조정되며, 2015. 7. 25까지 3년간 검토 후 폐지 또는 개정됨.

-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원수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대기업들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과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의 경쟁 심화는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II-19〉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I-20〉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표 II-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개인연금             | 41,489 | 21.1 | 31,829               | 3.1 | 41,344                   | -2.6 | 41,407                   | 0.2 |
| 퇴직연금             | 32,840 | 3.3  | 31,152               | 9.8 | 41,271                   | 15.9 | 43,568                   | 5.6 |
| 합계 <sup>3)</sup> | 74,337 | 11.1 | 62,991               | 6.3 | 82,616                   | 5.8  | 84,975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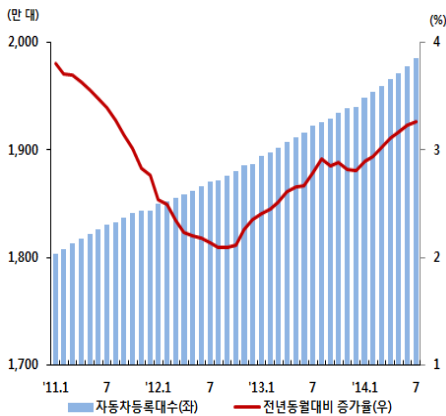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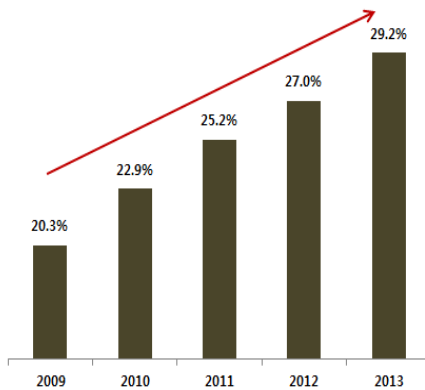
## 다. 자동차보험

- 2014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물담보<sup>29)</sup> 가입금액 증가세에 힘입어 4.1% 증가가 예상됨.
- 경기둔화로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2013년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14년에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악화 해소를 위하여 2014년 4월 이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수입차 중심의 고가 자동차 확대 추세 등으로 대물담보의 가입금액이 점점 고액화되고 있음.
- 단, 주행거리 연동특약 및 블랙박스 할인특약 확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

〈그림 II-21〉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그림 II-22〉 자동차보험 월별 경과손해율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보험개발원.

29)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보험자의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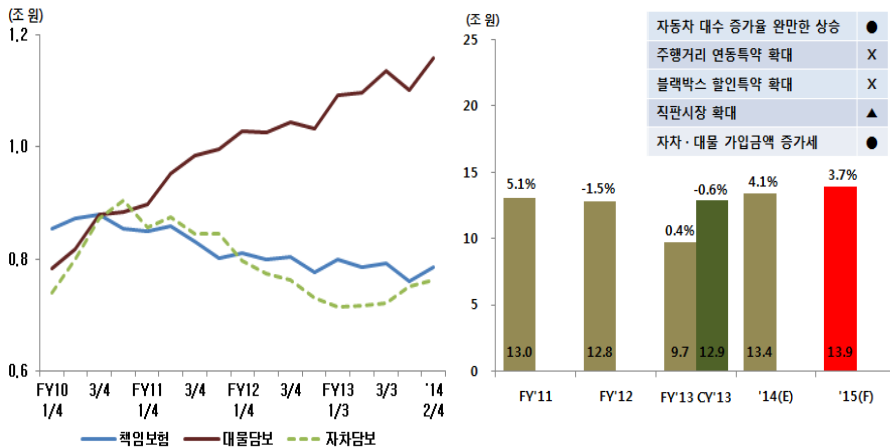
■ 201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의존한 3.7%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 내수 시장 소폭 회복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상반기에는 2014년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 반영<sup>30)</sup>될 것이고, 차차담보<sup>31)</sup>의 완만한 회복세와 대물담보의 가입금액 증가세가 계속 되어 원수보험료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할인형 상품<sup>32)</sup> 확대에 의한 대당보험료 감소세와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추세 지속은 원수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림 II-23〉 주요 담보별 원수보험료 추이 〈그림 II-2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30) 2014년 4월 이후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기 시작하였으며,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부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2014년 보험료 인상을 적용받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갱신 시기 도래 시 보험료가 인상될 것임.

31) 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함.

32) 주행거리 연동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함.

〈표 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sup>1)</sup> |     | 2014(E) <sup>1)</sup> |     | 2015(F) <sup>1)</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자동차 | 128,416 | -1.5 | 97,435               | 0.4 | 134,091               | 4.1 | 139,010               | 3.7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 라. 일반손해보험

■ 2014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특종보험 증가세 둔화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sup>33)</sup>에 따른 의무가입 수요 확대 효과가 약화되고 건설경기 부진도 계속되어 2.4% 감소가 예상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항만물동량 회복세<sup>34)</sup>로 적하보험 감소세가 둔화되고 선박보험도 회복세를 보여 1.7% 증가가 예상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투자 둔화<sup>35)</sup>와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로 1.0% 감소할 것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둔화와 기타 특종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어 FY2013 원수보험료 증가율보다 2.3%p 하락한 3.3%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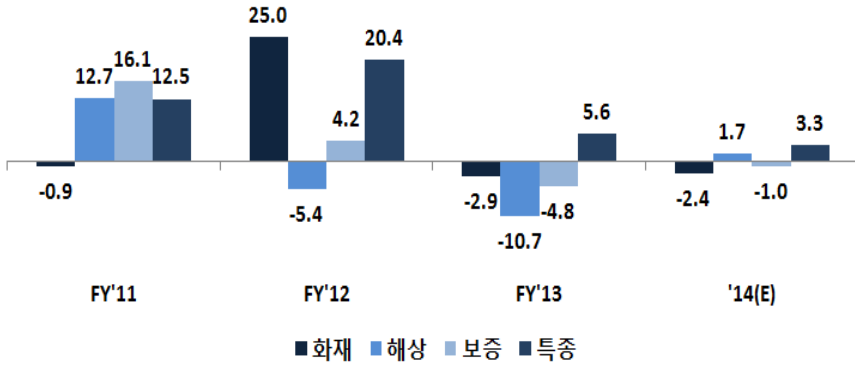
33)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34) 전국 항만물동량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2년 3/4분기 3.4% → 2013년 3/4분기 0.7% → 2014년 3/4분기 2.7%

35) 건설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3년 상반기 6.4% → 2013년 하반기 7.0% → 2014년 상반기 1.9%

〈그림 II-2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는 2014년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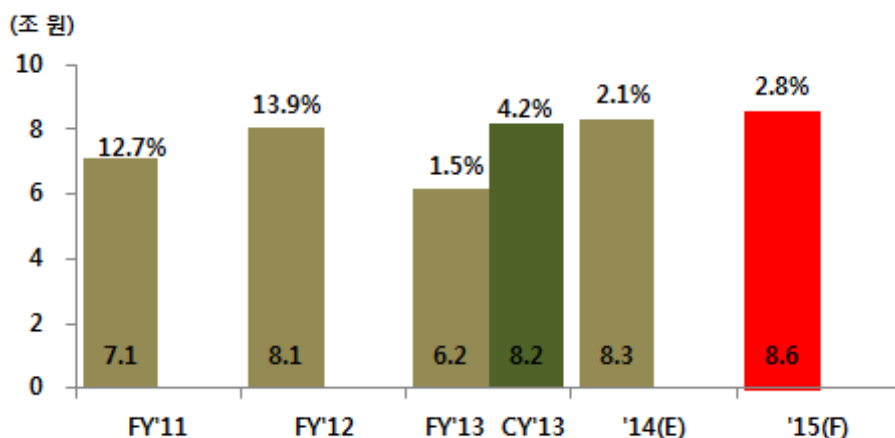
- 2015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대부분 종목의 실적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보여 2.8%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주택착공 증가세<sup>36)</sup> 등에 힘입은 소폭의 신규수요 회복세가 예상되나 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종목으로의 수요 분산<sup>37)</sup>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0.5%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고 적하보험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2.6% 증가가 전망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2년 동안 계속된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0% 증가가 전망되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임.

36) 2014년 정부의 주택경기 정상화 대책 등으로 2014년 1~8월까지 주택착공 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2,758만 m<sup>2</sup>를 기록하였음.

37)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특종보험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 및 통합보험이 화재보험보다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와 같은 종목으로 일부 화재보험 수요가 전환되고 있음.

○ 특종보험의 경우 경기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상해, 종합, 그리고 기타 특종보험이 부진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4년과 동일한 3.3%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2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CY2013은 2013년 1~12월 실적임.

〈표 II-6〉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화재               | 3,293  | 25.0 | 2,413                | -2.9  | 3,142                    | -2.4 | 3,126                    | -0.5 |
| 해상               | 8,230  | -5.4 | 6,016                | -10.7 | 7,638                    | 1.7  | 7,833                    | 2.6  |
| 보증               | 15,816 | 4.2  | 11,238               | -4.8  | 15,098                   | -1.0 | 15,403                   | 2.0  |
| 특종 <sup>3)</sup> | 53,433 | 20.4 | 42,012               | 5.6   | 57,535                   | 3.3  | 59,424                   | 3.3  |
| 합계               | 80,773 | 13.9 | 61,679               | 1.5   | 83,413                   | 2.1  | 85,786                   | 2.8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마. 손해보험 종합

- 2014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5.3% 증가가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소폭 회복과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6.1%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효과의 약화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체계변경으로 초회보험료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2.6%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조정과 일부 회사들의 관계사 신규계약 체결 등으로 15.9%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물담보 가입금액 증가 추세 등으로 4.1% 증가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의 저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성장 동력이 약화된 데다 대부분 종목에서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아 4.8%의 제한적인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4년 수준의 초회보험료 유입과 안정적인 해지율 유지 등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주목받을 수 있으나 지속된 초회보험료 저성장으로 성장 여력이 약화되어 있어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 신설과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5.6%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세,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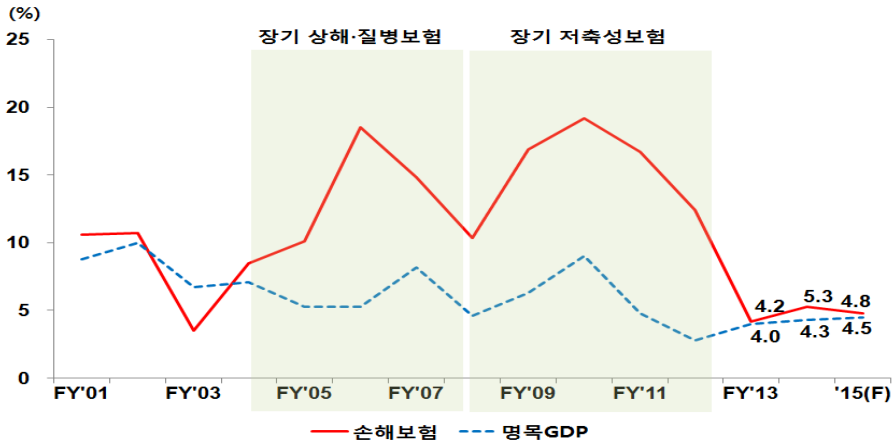
에 미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분 반영, 그리고 대물담보의 가입금액 증가세 등으로 3.7% 증가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다른 종목들의 실적 개선 여력도 크지 않아 2.8%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4.8%)은 그동안 고성장을 견인하였던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명목경제성장률(4.5%)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임.

- FY2004 이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명목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FY2013 이후 성장 동력 약화로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II-2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명목경제성장률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표 II-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장기손보             | 401,896 | 17.7 | 315,478              | 5.6   | 444,216                  | 6.1  | 470,022                  | 5.8  |
| 상해·질병            | 166,786 | 14.2 | 142,314              | 16.1  | 212,459                  | 13.9 | 235,481                  | 10.8 |
| 저축성              | 124,559 | 27.8 | 89,300               | -4.3  | 119,081                  | -1.2 | 120,605                  | 1.3  |
| 기타 <sup>3)</sup> | 110,551 | 12.9 | 83,864               | 1.1   | 112,675                  | 1.1  | 113,936                  | 1.1  |
| 연금부문             | 74,337  | 11.1 | 62,991               | 6.3   | 82,616                   | 5.8  | 84,975                   | 2.9  |
| 개인연금             | 41,489  | 21.1 | 31,829               | 3.1   | 41,344                   | -2.6 | 41,407                   | 0.2  |
| 퇴직연금             | 32,840  | 3.3  | 31,152               | 9.8   | 41,271                   | 15.9 | 43,568                   | 5.6  |
| 자동차              | 128,416 | -1.5 | 97,435               | 0.4   | 134,091                  | 4.1  | 139,010                  | 3.7  |
| 일반손보             | 80,773  | 13.9 | 61,679               | 1.5   | 83,413                   | 2.1  | 85,786                   | 2.8  |
| 화재               | 3,293   | 25.0 | 2,413                | -2.9  | 3,142                    | -2.4 | 3,126                    | -0.5 |
| 해상               | 8,230   | -5.4 | 6,016                | -10.7 | 7,638                    | 1.7  | 7,833                    | 2.6  |
| 보증               | 15,816  | 4.2  | 11,238               | -4.8  | 15,098                   | -1.0 | 15,403                   | 2.0  |
| 특종 <sup>4)</sup> | 53,433  | 20.4 | 42,012               | 5.6   | 57,535                   | 3.3  | 59,424                   | 3.3  |
| 전체               | 685,422 | 12.4 | 537,582              | 4.2   | 744,337                  | 5.3  | 779,793                  | 4.8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 3. 보험산업 종합

- 2015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료<sup>38)</sup> 증가율이 모두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38) 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표 II-8〉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 구분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 115.3  | 31.3 | 77.2                 | -8.0 | 111.1                    | 2.4 | 117.1                    | 5.4 |
| 손해보험    | 68.5   | 12.4 | 53.8                 | 4.2  | 74.4                     | 5.3 | 78.0                     | 4.8 |
| 전체      | 183.9  | 23.6 | 131.0                | -3.4 | 185.6                    | 3.5 | 195.1                    | 5.2 |
| 명목경제성장률 | 2.8    |      | 4.0                  |      | 4.3                      |     | 4.5                      |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 2015년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sup>39)</sup>(총보험료/명목GDP)의 경우 총보험료 증가율이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 보험침투도와 유사한 12.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4년보다 0.07%p 상승한 7.53%, 손해보험 침투도는 0.01%p 상승한 5.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9〉 보험침투도 전망<sup>1),2)</sup>

(단위: %)

| 구분   | FY2011 | FY2012 | FY2013 <sup>4)</sup> | 2014(E) <sup>3),5)</sup> | 2015(F) <sup>3),5)</sup> |
|------|--------|--------|----------------------|--------------------------|--------------------------|
| 생명보험 | 6.52   | 8.32   | 7.07                 | 7.46                     | 7.53                     |
| 손해보험 | 4.52   | 4.98   | 4.92                 | 5.00                     | 5.01                     |
| 전체   | 11.04  | 13.35  | 11.99                | 12.46                    | 12.53                    |

주: 1)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 국민계정체계 개편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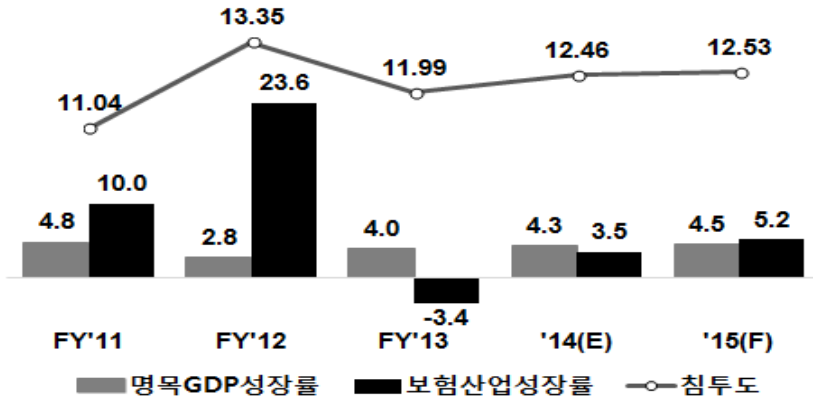
4)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5)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39)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는 한 국가의 보험 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그림 II-28〉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3은 2013년 4~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며,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명목GDP 대비 보험료 비율임.

■ 2015년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sup>40)</sup>(총보험료/총인구 수)는 386만 9,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32만 3,000원, 154만 6,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I-10〉 보험밀도 전망<sup>1),2)</sup>

(단위: 천 원)

| 구분   | FY2011  | FY2012  | FY2013 <sup>4)</sup> | 2014(E) <sup>3),4)</sup> | 2015(F) <sup>3),4)</sup> |
|------|---------|---------|----------------------|--------------------------|--------------------------|
| 생명보험 | 1,764.5 | 2,306.0 | 1,538.0              | 2,203.8                  | 2,323.2                  |
| 손해보험 | 1,224.7 | 1,370.7 | 1,070.5              | 1,476.2                  | 1,546.5                  |
| 전체   | 2,989.2 | 3,676.7 | 2,608.4              | 3,679.9                  | 3,869.7                  |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3년 12월 자료를 사용함.

3)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4)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40)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

## Ⅲ. 보험산업 경영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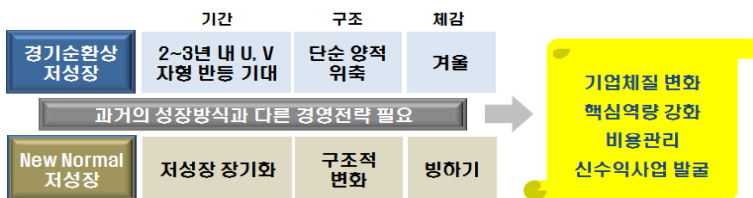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6년이 되었으나 국내외 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부채위기인데, 아직도 주요국에서는 부채조정이 진행 중임.
  - 기업들은 90년대 말부터 단기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설비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켰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채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도 부족해졌음.
  - 시장만능주의 등에 의해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이 경제성장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이에 따른 저금리가 ‘New Normal’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저금리 상황을 받아들여야 함.
  
- 보험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수요가 둔화되고 성장동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임.

- 2015년 보험산업은 5% 내외, 즉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이나마 성장이 가능한 것은 인구고령화로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계의 잉여자금 대부분이 보험과 연금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향후 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임.

■ 저성장·저금리가 ‘New Normal’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방안보다 기업의 내실을 장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보험회사들의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과거에는 저성장이 경기순환상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경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저성장은 봄이 오지 않고 겨울이 지속되는 빙하기와 같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영방식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며, 신성장동력 발굴, 비용관리 효율화, 기업가치 제고 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Ⅲ-1〉 저성장·저금리의 ‘New Normal’과 환경변화



자료: 김성표 외(2013) 재편집.

■ 보험산업 규제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를 돌이켜보면, 요율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판매채널 변화, 그리고 소비자권의 강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경영방식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쳐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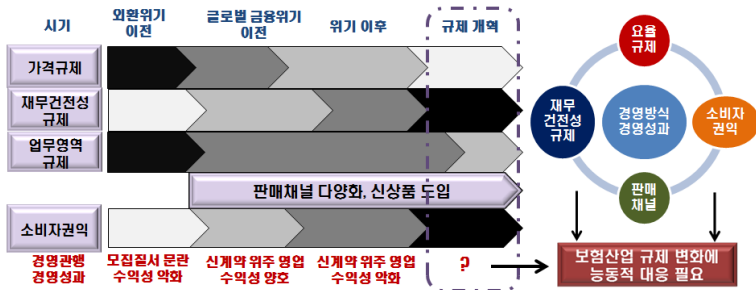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격이 자유화되지 않고 재무건전성 규제가 부재한 가운데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이 대거 허용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설 계사들의 모집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무리한 사업비 지출로 많은 보험회사 들이 부실해졌음.
-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격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 되기 시작되었으며,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예정이율이나 위험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여 사업비차익 에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계약 위주의 영업은 지속되었으 며, 불완전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등 모집질서 개선은 지체됨.
-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등 새로운 상품의 도입으 로 수익성은 양호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요율 등에 대한 그림자 규제 지속으로 신계약 위주의 경영방식은 바뀌지 않았음.
- 그러나 이후 RBC 비율 규제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사업비 체계 도 분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소비자권익도 강화됨에 따라 신계 약이 둔화되어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음.

■ 최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금융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2014년 7월 요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그리고 소비자 신뢰 개선 등 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음.
- 요율 규제 등 그림자 규제가 사라져 가격결정에 있어서 보험업계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나 이와 함께 영업행위규제 등 소비자권익 역시 강화될 것이며, 또 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임.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감내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심 우려됨.

- 과거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강화된 재무건전성 규제 속에서 가격을 통한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경영자의 비전 및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위험과 연계된 의사 결정이 중요해질 것임.
- RBC 규제 강화와 부채시가평가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감독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크게 하회하는 104%<sup>41)</sup>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특히 재무건전성 약화가 우려됨.

〈그림 III-2〉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산업 환경변화



- 이러한 경제·금융시장·감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15년 경영과제로 첫째,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둘째,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셋째,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넷째, 보험산업 규제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제시함.

## 1. 뉴 노멀 시대의 경영전략 모색

- 저성장·저금리·저수익률 등 “3저”로 표현되는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
  - 과거 고성장 시기의 경영전략은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에 맞게 수립·추진되었으며 수익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음.

41) 보험연구원 예측에 따른 추정치임.

- 특히 리스크를 조정한 질적인 성장보다는 이를 간과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누적된 리스크가 뉴 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를 조정한 자본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영여건이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소비자 중심 경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와 공정한 대우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집단 소송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임.
  - 영업행위 규제가 건전성 규제와 더불어 규제의 축으로 확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전략 수정이 필요함.
-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창출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용구조를 재검토해야 함.
- 신규 수익원 창출은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창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임.
    -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음에 따라 보험산업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기존 고객들로부터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었음.
  - 기존 고객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고객관계 강화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확대해야 함.
  -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한 자본비용 상승은 자본비용을 고려한 실질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금융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수익원 발굴과 더불어 혁신을 통해 사업프로세스 조정 및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고객과 리스크관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회사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야 함.

- 금융회사의 지속성장과 수익창출에 고객과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측면에서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sup>42)</sup>
- 금융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와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회사의 평판과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 문화 형성의 시작임.

■ 뉴 노멀 시대에 금융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고려한 질적 성장,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방안을 모색해야 함.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규모는 커졌고 자본비용과 리스크관리의 개념이 금융회사 경영에 도입되었으나 금융회사 경영은 과거 경제개발 시대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함.

42) Financial Stability Board(2014, 4, 17), “Guidance on Supervisory Interac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n Risk Culture”.

## 2.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지속

### 가. 해외 사업 활성화

-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1980년대 초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들어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초기 해외진출과 사업은 선진 금융·보험시장 조사, 모회사 자산운용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현지 보험영업이 본격화됨.
  - 진출기간을 고려할 경우 현지 보험영업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현지 판매 채널의 특성 등으로 보험영업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인구고령화로 향후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사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기회 감소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이미 경험했는데, 각국의 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하였음.
  -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례로 일본 동경화재해상보험의 경우 2000년부터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해외보험사업의 비중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4%에 이름.
    - － 90년대 초까지 일본 보험회사들은 해외사업의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인구고령화, 장기간의 저성장·저금리 등으로 2000년대 들어 해외사업을 본격화하였음.
  - 지역적으로는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해외사업이 국내시장의 성장 기회 감소와 수익성 둔화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핵심역량 강화·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보험회사는 해외사업이 장기적·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 현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열 제조업 기업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현지 보험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판매채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해외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사적 준비가 필요하다.
-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투자는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나.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이에 대응한 복지재원의 한계는 민영보험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3년 현재 약 12% 수준이나 2026년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기간이 8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름. 일본 12년, 영국 45년).
-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부문 대처의 한계로 민영보험을 통한 고령화 리스크 대처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이고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고령 특화 보험상품은 암보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급여서비스는 현금서비스 중심이어서 현물서비스(예, 간병, 상조 등)와 건강관리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임.

- 현물 및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예, 유병자보험, 표준하체 연금) 공급이 활발한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형 보험상품(현물서비스 포함)을 개발하고, 부가 서비스도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가입자 특성 및 위험군을 고려한 건강보험상품(예, 유병자 건강보험 등)이 개발되고,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가 사전에 절감되도록 하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은퇴 시점을 전후한 차별화된 연금정책(예,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catch up policy 적용)과 공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사적연금 보조금 및 세제지원 우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다.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예상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 손해보험은 세계 10위 수준이나 배상책임보험은 2008년을 기준으로 세계 10위인 중국의 42% 수준임.<sup>43)</sup>
- 최근 수년간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일반 손해보험<sup>44)</sup>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정체되어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이 일반 손해보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인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3) Swiss Re, sigma #3/2012, #5/2009 참조.

44) 장기, 퇴직보험, 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올해 일어난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시켜 관련 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최근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보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sup>45)</sup>
- 손해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고액 손해배상 사례의 수집과 홍보를 통한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sup>46)</sup>
  -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 종합보험(배상책임보험 담보 포함)과 같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개발하여 관련 시장을 공략하였음.
    -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국내 상품은 담보하는 손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면책 조항이 많아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손해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사이버 리스크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사

45) 예를 들어, 2014년 8월 22일 서울 중앙 지법은 KT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28,718명에 대하여 인당 10만 원의 위자로 지급을 명령함.

46) 예를 들어, 일본은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고 손해보험회사들과 일본손해보험협회는 고액의 손해배상액 사건을 적극 홍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매출을 급증시켰음.

업 영역을 늘리고 매출을 증진시킨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크 하여 관련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3. 효율적인 비용관리 방안 마련

-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 성장률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기에서 저성장 시기에 진입함.
  - 신계약 성장률 둔화에 따라 보험료 성장률은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아니라 계속보험료 성장률에 크게 의존함.
- 따라서 성장률 둔화에 걸맞은 체계적인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고성장·저효율 경영에서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 전환해야 함.
  - 저성장 지속을 전제로 한 경영관리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사업비인데,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과 사업비율 관리가 중요한 경영과제임.
  - 한편, 사업비규제 강화와 새 회계기준은 신계약 중심 영업관행을 압박할 것임.
    - 2013년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한 신계약비 분납과 온라인채널 신계약비 인하가 진행 중이며,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축소도 예정됨.
    - 2018년 시행 예정인 IFRS4 phase2에서 간접비는 즉시 비용 처리됨.
    - 따라서 간접비 부담 완화와 비용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
- 인력, 상품, 언더라이팅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업무절차 등 보험회사 전반의 비용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4. 보험산업 규제변화 효과적 대응

- 지난 7월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크게 1) 요율 선진화 추진 2) 재무건전성 강화 3) 소비자 신뢰 개선의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번 정책안은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해 요율 선진화를 추구하고 부채 시가평가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집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후속 정책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보험이해도 평가제도 도입,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단종 보험대리점 도입,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됨.
  
- 후속 정책이 잇따르면서 채널관련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요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방안 가운데 판매채널 간 칸막이 해소 차원의 복합점포 활성화, 보험상품의 원스탑 현장판매 허용, 단종 보험대리점 도입, 보험수퍼마켓 개설, 금융상품의 원스탑 자문판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 시스템 등이 내년도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산업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 정책이 불리울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산업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
  -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됨에 따라 복합점포, 보험수퍼마켓,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 시스템, 단종 보험대리점 등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영업환경 질서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됨.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및 기금형 제도 도입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감독당국은 요율 선진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무건전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안전할증 설정에 대한 규제 해소, 협의요율 제도 개선을 통해 요율 선진화를 추구하고, RBC 제도를 통한 재무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을 마련하는데도 힘써야 함.

■ 한편, 감독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근거한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조정과 ORSA 시범 시행 및 공시강화 등 RBC 규제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함.
- 또한, 2018년 IFRS4 Phase 2 시행에 앞서 2015년부터 보험부채 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함.

■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로 2018년까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급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남은 3년 동안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자본확충을 실행하고 위험기준 성과지표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자본비용을 극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으로 후순위채의 적절한 발행으로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해외 우량 생보사들이 후순위채를 가용자본의 10~20%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음.
  - 감독당국도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하고 RBC 제도에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경감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효과적 자본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IFRS4 Phase 2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Phase 2 시행까지 사실상 준비기간이 2,3년에 불과하므로 부채시가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 Phase 2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기반하여 표시하므로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경영의사결정을 연계해 나가야 함.
  - 이는 위험관리와 자본규제를 연동하는 ORS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부 록

##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 항목              | FY2012               | FY2013 <sup>1)</sup> | 2014(E) <sup>1)</sup> | 2015(F) <sup>1)</sup> |
|-----------------|----------------------|----------------------|-----------------------|-----------------------|
| 수입보험료(억 원, 성장률) | —                    | —                    | —                     | —                     |
| - 생명보험          | 1,153,086<br>(31.3%) | 772,367<br>(-8.0%)   | 1,111,232<br>(2.4%)   | 1,171,474<br>(5.4%)   |
| - 손해보험          | 685,422<br>(12.4 %)  | 537,582<br>(4.2%)    | 744,337<br>(5.3%)     | 779,793<br>(4.8%)     |
| - 전 체           | 1,838,508<br>(23.6%) | 1,309,949<br>(-3.4%) | 1,855,568<br>(3.5%)   | 1,951,267<br>(5.2%)   |
| 보험침투도(%)*       |                      |                      |                       |                       |
| - 생명보험          | 8.3                  | 7.1                  | 7.5                   | 7.5                   |
| - 손해보험          | 5.0                  | 4.9                  | 5.0                   | 5.0                   |
| - 전 체           | 13.3                 | 12.0                 | 12.5                  | 12.5                  |
| 1인당보험료(천원)      |                      |                      |                       |                       |
| - 생명보험          | 2,306                | 1,538                | 2,204                 | 2,323                 |
| - 손해보험          | 1,371                | 1,071                | 1,476                 | 1,547                 |
| - 전 체           | 3,677                | 2,608                | 3,680                 | 3,870                 |
| 생손보 구성비(%)      |                      |                      |                       |                       |
| - 생명보험          | 62.7                 | 59.0                 | 59.9                  | 60.0                  |
| - 손해보험          | 37.3                 | 41.0                 | 40.1                  | 40.0                  |

주: 1)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2) 보험침투도 = 총수입보험료/명목GDP

3)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 종목                 |                  | FY2012    |      | FY2013 <sup>2)</sup> |       | 2014(E) <sup>1),2)</sup> |      | 2015(F) <sup>1),2)</sup> |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 보장성              | 319,188   | 7.4  | 248,094              | 4.3   | 348,094                  | 5.7  | 363,758                  | 4.5  |
|                    | 저축성              | 759,741   | 50.6 | 448,383              | -17.2 | 652,111                  | -2.2 | 684,739                  | 5.0  |
|                    | 개인소계             | 1,078,929 | 34.6 | 696,477              | -10.6 | 1,000,205                | 0.4  | 1,048,497                | 4.8  |
|                    | 단 체              | 74,156    | -3.1 | 75,891               | 25.7  | 111,027                  | 23.8 | 122,977                  | 10.8 |
|                    | 합 계              | 1,153,086 | 31.3 | 772,367              | -8.0  | 1,111,232                | 2.4  | 1,171,474                | 5.4  |
| 손해보험 <sup>5)</sup> | 장기손보             | 401,896   | 17.7 | 315,478              | 5.6   | 444,216                  | 6.1  | 470,022                  | 5.8  |
|                    | 상해·질병            | 166,786   | 14.2 | 142,314              | 16.1  | 212,459                  | 13.9 | 235,481                  | 10.8 |
|                    | 저축성              | 124,559   | 27.8 | 89,300               | -4.3  | 119,081                  | -1.2 | 120,605                  | 1.3  |
|                    | 기타 <sup>3)</sup> | 110,551   | 12.9 | 83,864               | 1.1   | 112,675                  | 1.1  | 113,936                  | 1.1  |
|                    | 연금부문             | 74,337    | 11.1 | 62,991               | 6.3   | 82,616                   | 5.8  | 84,975                   | 2.9  |
|                    | 개인연금             | 41,489    | 21.1 | 31,829               | 3.1   | 41,344                   | -2.6 | 41,407                   | 0.2  |
|                    | 퇴직연금             | 32,840    | 3.3  | 31,152               | 9.8   | 41,271                   | 15.9 | 43,568                   | 5.6  |
|                    | 자동차              | 128,416   | -1.5 | 97,435               | 0.4   | 134,091                  | 4.1  | 139,010                  | 3.7  |
|                    | 일반손보             | 80,773    | 13.9 | 61,679               | 1.5   | 83,413                   | 2.1  | 85,786                   | 2.8  |
|                    | 화재               | 3,293     | 25.0 | 2,413                | -2.9  | 3,142                    | -2.4 | 3,126                    | -0.5 |
|                    | 해상               | 8,230     | -5.4 | 6,016                | -10.7 | 7,638                    | 1.7  | 7,833                    | 2.6  |
|                    | 보증               | 15,816    | 4.2  | 11,238               | -4.8  | 15,098                   | -1.0 | 15,403                   | 2.0  |
|                    | 특종 <sup>4)</sup> | 53,433    | 20.4 | 42,012               | 5.6   | 57,535                   | 3.3  | 59,424                   | 3.3  |
|                    | 합 계              | 685,422   | 12.4 | 537,582              | 4.2   | 744,337                  | 5.3  | 779,793                  | 4.8  |
| 전 체                |                  | 1,838,508 | 23.6 | 1,309,949            | -3.4  | 1,855,568                | 3.5  | 1,951,267                | 5.2  |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회계연도 변경으로 FY20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며 증가율도 전년 동기기간인 2012년 4~12월 실적 기준 증가율이고, 2014(E)와 2015(F)는 각 연도의 1~12월까지 실적 기준임.

3)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4)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5)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 연구보고서

---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정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웅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      | 법인회원                                                                                                                                                                                                     | 특별회원                                                                                                                                                                                                     | 개인회원                                                                                                                                                                                                     |
|------|----------------------------------------------------------------------------------------------------------------------------------------------------------------------------------------------------------|----------------------------------------------------------------------------------------------------------------------------------------------------------------------------------------------------------|----------------------------------------------------------------------------------------------------------------------------------------------------------------------------------------------------------|
| 연회비  | ₩ 300,000원                                                                                                                                                                                               | ₩ 150,000원                                                                                                                                                                                               | ₩ 150,000원                                                                                                                                                                                               |
| 제공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보험금융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보험금융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보험금융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 자 약 력

### 윤성훈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실장)  
(E-mail : shyun@kiri.or.kr)

### 김석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동향분석실 부실장)  
(E-mail : skim@kiri.or.kr)

### 김진억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mail : kjo990@kiri.or.kr)

###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inowon@kiri.or.kr)

### 채원영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wychae@kiri.or.kr)

### 이아름

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ar@kiri.or.kr)

### 이해랑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haerang@kiri.or.kr)

정책보고서 2014-4

##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13-8

정가 10,000원